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우크라이나

목차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일반

1.국가개요	4
2.한국과의 관계	5
3.경제현황	9
4.정치	12
5.주요산업	13

II.무역

1.수출입	15
2.한국과의 수출입	24
3.수출 유망항목	28
4.무역협정	31
5.수입규제 및 관세	32
6.통관 · 물류	36

III.투자

1.투자환경	39
2.외국인직접투자	43
3.한국기업 투자	45
4.투자진출방식	49
5.외환	53
6.노무	54
7.세무	57
8.지식재산권	61
9.청산 및 철수	62

IV.참고정보

1.시장특성	63
2.비즈니스 에티켓	66
3.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71
4.현지 진출 성공사례	71

5.출입국 안내	73
6.유관기관	74
7.물가정보	76
8.출장정보	79
9.생활정보	81
10.KOTRA 무역관 안내	92
11.전시회 정보	99
	100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우크라이나(Ukraine)
면적	603,550 km ² (자료원 : CIA Worldfact book, 2023년)
수도	키이우(Kyiv)
인구	43,306,477 명 (자료원 : CIA Worldfact book/2023년)
민족(인종)	○ 민족: 슬라브족 ○ 인종: 우크라이나인(77.8%), 러시아인(17.3%), 벨라루스인(0.6%), 몰도바인(0.5%), 크림 타타르(0.5%)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로 떠난 피난민들이 많아 인구수나 인종정보는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2023년 10월 인구수를 2,800만 ~ 3,4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어	우크라이나어(공용어), 러시아어(상용어)
종교	우크라이나 정교, 러시아 정교, 우니아트교, 가톨릭교, 개신교 등
기후	온화한 대륙성 기후이나 남부 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지중해성 기후도 나타난다.
국가원수	○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총리: 데니스 슈미갈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92-02-10 (자료원 :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2023-09-13		
과학기술협력협정	1994-05-20	과학기술협력협정	
외무부간 협력의정서	1995-11-30	외무부간 협력의정서	
정보통신부 간 협력 약정	1995-05-15	정보통신부 간 협력 약정	
통상산업부 간 무역공동위원회 설립 양해각서	1996-12-01	통상산업부 간 무역공동위원회 설립 양해각서	
무역협정	1997-04-25	무역협정	
투자상호증진 및 보호협정	1997-11-03	투자상호증진 및 보호협정	
상용 복수사증협정	2001-11-15	상용 복수사증협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	2002-03-19	이중과세 방지 협정	
항공업무협정	2003-03-06	항공업무협정	
세관협정	2004-04-27	세관협정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2005-10-25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외교관여권소지자 사증면제여행 협정	2006-09-15	외교관여권소지자 사증면제여행 협정	
무상원조기술협정	2006-10-20	무상원조기술협정	
원자력협정	2007-06-11	원자력협정	
우주협력협정	2007-08-20	우주협력협정	
방산군수협정	2007-08-29	방산군수협정	
관광협정	2009-07-08	관광협정	
해운협정	2009-08-02	해운협정	
문화협정	2009-08-03	문화협정	

관용공무여권소지자 사증면제협정	2014-09-17	관용 및 공무여권소지자 사증 면제	
------------------	------------	--------------------	--

한국교민 수

28 명 (자료원 : 외교부/2022월 2월 20일)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1992년 2월 10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수교한 이래 경제 통상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양국의 경제력 및 잠재력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협력 논의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양국은 UN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하면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 및 남북대화 노력 등에는 일관성 있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피난민을 돕기 위해서 1000만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구호 물품을 선정하였고, 방호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구급키트, 담요, 휴대용 산소발생기, 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등을 전달했다.

2023년 9월 13일,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 A/G: Agreement)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이 협정은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능력과 경험을 손상된 인프라, 산업 및 민간 시설의 전후 재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향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재건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

1) 농업 분야

우크라이나는 미래 식량 시장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비옥한 흑토와 온화한 기후라는 천혜의 영농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인 농업 강국이다. 우리나라의 6배에 달하는 영토에 농지 가용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42.8%이다. 최근 전쟁으로 인해 여러 도시가 파괴되고 주요 농업 도시인 헤르손 도시가 러시아에 점령당하고 남부 항구 도시들이 러시아 공격의 위협으로 항구가 막혀 5개월 동안 해상 운송 수출을 할 수 없어 농업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7월 22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터키 4자 곡물 수출 협정으로 다시 해상 운송이 가능해지고 곡물 수출을 시작하게 되었고 농업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주요 산업이다. 이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농업자원과 한국의 농업기술, 농업 인프라 구축 경험 등이 더해지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농업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와의 농업 협력은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식량 안보 차원이라는 관점에서도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사료용 밀과 사료용 옥수수다. 그러나 아직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모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산 식량 자원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對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투자한 우크라이나 남부 곡물터미널에서 '사료용 밀'을 국내로 첫 반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임에도 사료용 밀, 옥수수, 기타곡류의 우리나라 對우크라이나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사료는 전년 대비 7428% 증가한 1억 7786만 달러, 옥수수는 전년 대비 861% 증가한 1억 6452만 달러, 기타곡류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51만 달러를 기록했다.

2) 전력 에너지 분야

우크라이나는 전력 생산량은 많으나, 관련 발전 시설 및 송배전 망이 모두 노후화되어 효율성이 낮고 신규 교체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가스 분쟁 때문에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게 되면서 고효율의 에너지 생산/분배 시스템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 가입을 목표로 하는 우크라이나는 EU 표준에 맞추기 위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대체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 시설 확충 계획도 갖고 있다. 이에 최근 우리 전력 공기업 및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력 시장 투자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투자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찾아오고 있다.

3) 우주 항공 분야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우주선을 설계, 제작, 발사할 수 있는 우주 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다. 우크라이나가 가진 우수한 기초 과학 분야 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품질의 항공 부품 및 상용화 기술을 잘 결합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무역 경험 공동위원회,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협력에 관해 논의 중이다. 한국 또한 우주 항공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와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4) 의료 분야

우크라이나는 최근 의료 분야에 꾸준히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분야는 기존의 사회주의 시대의 무상 의료 시스템 영향권 하에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고, 제도 미정비, 부정부패 등으로 공공의료 부분은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국공립병원 시설이 낙후되었고, 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품질도 낮은 편이다. 의료 분야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는 매년 의료 분야 정부 예산을 늘려 의료보건산업,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립병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기기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수입대상국 5위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가 2020년 EU가입을 위한 전략으로 발표한 8개 개혁 분야 중 하나가 헬스케어 시스템 개혁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전체 의료 시장 (4천 억UAH)의 1%에 불과하여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디지털 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5) 방위 산업 분야

우크라이나는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는 국방개혁에 공을 들여왔다. 지휘체계, 무기체계, 수송/보급, 자동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러-우 사태로 인한 방산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023년 국가 예산 국방 분야에 40% 책정했고 2024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분야 50%를 책정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방산업체들의 생산품들은 상당수가 구소련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두고 있어 기술적으로 서방 국가들의 정교한 무기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방산 산업 우크라이나 제조 육성에 힘쓰고 있어, 방산 산업 관련 부품 등 부품공급 체계에서 우리 방산기업의 조달 납품이나 기술 교류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

2017년 한-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 이후로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음악회, 태권도 대회, K-pop 페스티벌, 예술전 등 한국 관련 문화 행사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K-pop을 중심으로 한류 문화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이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약 19개의 한글학교가 운영 중이며, 7개의 초중고등학교, 4개의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 1,728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지금까지 3번의 한국말하기 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여행금지구역이 되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출국한 상황이다. 오프라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몇몇 학교만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한국 교육원이 정식으로 개설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쉽게 한국을 접할 수 있도록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유학생 지원/유치 활동, 한국의 글로벌 교육 지원 활동, 우크라이나 내 동포 교육활동 지원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전쟁이 시작되면서 봄학기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9월부터 다시 2학기 한국

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8개 강좌, 총 311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9월 23일 ~10월 7일, 우크라이나 한국 교육원 한국어 쓰기 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쟁 중이지만 한국 교육원은 한글 보급에 힘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교육 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Ukraine)는 새로운 학교 프로그램으로 지리과목에 한국에 관한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 국가" 라는 주제에 대한민국의 위치, 경제 모델의 한국,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	3.2	-4	2.5	-30.4	
명목GDP (십억\$)	153.9	155.5	175.9	151.5	
1인당 GDP (PPP, \$)	13,355	13,153	14,187	12,340	
1인당 명목 GDP (\$)	3,664	3,729	4,880	4,350	
정부부채 (% of GDP)	56.9	54.3	48.9	78.4	
물가상승률 (%)	4.1	5	10	26.6	
실업률 (%)	8.2	9.5	9.7	21.1	
수출액 (백만\$)	46,091	45,143	62,881	44,170	
수입액 (백만\$)	60,352	51,921	68,330	54,530	
무역수지 (백만\$)	-14,261	-6,778	-5,449	-10,360	-
외환 보유고 (백만\$)	21,930	26,140	30,600	28,500	
이자율 (%)	13.5	6	10	2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25.8	26.9	27.3	32.34	

<자료원 : IMF, EIU,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현지언론 등>

나. 경제 동향

우크라이나는 국내외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이다. 2014년에 발생한 크림반도 사태와 동부 지역 내전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최악의 경기 침체기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와 내전 상황 때문에 모든 경제지표가 일시에 하락하였으며, 그 중 우크라이나 화폐 가치 폭락은 우크라이나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동부 지역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3년에는 우크라이나 흐리브냐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 7.99흐리브냐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사태 발생 이후 한때 달러 당 30흐리브냐까지 고공 행진하며 3배 이상 급락하였다.

다행히 IMF 및 국제사회의 원조 속에 2016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환율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지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점차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 내수소비 시장도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이 커졌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에 일부 은행에서는 बैं크런 사태가 발생했고, 각종 사업주 및 기업체들은 국가 방역을 위한 섣다운 조치로 경제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세입예산의 감소와 고질적 문제인 재정적자의 심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우크라이나는 2020년 농지개혁법과 은행법을 연달아 통과시키는 등 IMF의 구제금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GDP가 3.5%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기재개 노력,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2021년에는 3.6%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는 큰 경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손실액은 6월 기준 3,490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GDP)의 1.6배가 넘는다.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중소기업 중 40%, 전체 소매상 가운데 30%가 폐업하여 구매력이 크게 악화되었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40%가 실직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통계청에 따르면, 22년 초 대비 식품 가격이 평균 25%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은 공급 차질과 치솟는 재정 적자로 인해 2022년 8월에 23.8%까지 치솟았다. 최저 임금은 10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 최저임금이 1월에 책정되었던 6,500흐리브나에서 6,700 흐리브나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최저 임금은 231.6달러에서 183.2달러로 감소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흐리브나는 초약세를 보여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환율 통제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2월 24일, 1달러에 29.25UAH로 환율을 고정했다. 시장 환율은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중앙은행 고정 환율과 격차가 나기 시작했고, 5월 하순에는 중앙은행 환율 대비 약 6UAH 이상 격차가 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7월 21일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 대비 가치를 25% 절하하기로 결정하고 달러당 환율을 29.25UAH에서 36.5686UAH로 조정했다. 2023년 10월 3일까지 고정환율을 유지하다가 경기가 조금씩 안정된 것으로 판단, 2023년 10월 4일부터 변동환율제로 전환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 변동환율제가 아닌 관리 변동환율제로 우선 전환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6월 3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자국통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 기준금리(Key Policy Rate)를 10%에서 25%까지 인상했다. 2015년 할인율을 30%로 인정한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1년 넘게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7월 27일에 22% 인하, 9월 15일부터 20% 인하했다. 2023년 10월 27일부터는 기준금리(Key Policy Rate)를 16%로 인하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 총수입액은 545억3000만 달러로 2021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고 총수출액은 441억7000만 달러로 2021년 대비 35.1% 감소했다. 주요 수출 제조기업의 생산시설이 전투지역에 위치해 있고, 남부 항만 등이 봉쇄되어 수출입 물류가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2023년 1~10월 기간 우크라이나는 522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했고 298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다.

수출입이 감소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2월 24일 러시아 침공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외국으로 외환 송금을 극히 제한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이 불가하고 중요한 물품에 한해 수입이 가능한 품목(the list of critical import goods)을 정해 수입을 허용하고 해외송금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수입 품목 허가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철폐하고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그러나 7월 9일부로 수입품목 허가제(the list of critical import goods) 철폐하였고, 그와 함께 상품 수입을 위한 해외 송금 제한도 풀리게 되었다. 또한 수입관세, 부가세 부과를 정상화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의 파괴로 인하여 수출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쟁의 위험과 러시아의 공격으로 많은 공항들이 파괴되면서 항공사들은 항공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해상 운송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5개월 동안 중단되었다가 7월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터키가 우크라이나 곡물의 흑해 수출을 재개하는 협정을 맺어 오데사 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항구 3곳을 개방하기로 하여 수출이 재개 되었다. 협정이 몇 번 연장이 되었지만 2023년 7월 17일, 러시아의 일방적인 협정 중단 발표로 사실상 협정 종료되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관계없이 해상을 통한 수출을 하고 있으나, 언제 러시아가 공격을 할지 알 수 없어 위험부담이 크다.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 품목인 곡물과 철강 대부분이 해상운송을 통해서 수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현재, 철도와 도로는 거의 유일한 물류 운송 수단이다. 철도는 특정 품목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도로를 통한 수출입은 폴란드 운송업체의 파업으로

화물차 이동이 가능한 폴란드 국경 검문소 8개중 4개를 차단하고 있어 물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다.

2022년 인플레이션은 26.6% 이다. 2022년 물가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달걀 가격이 7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과일 73.8%, 야채 51.8%, 생선류 45.8%, 음료 36.7%, 설탕 31.0%, 빵류 30.3% 인상했다. 의류와 신발류만이 각각 1.3%, 3.2%로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료비 69.4%, 대중 교통비 28.1%,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26.5%, 레스토랑 및 호텔비도 22.5% 상승했다. 에너지비, 물류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2023년 10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3%,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실업률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전문가 테티야나 파슈키나(Tetyana Pashkina)는 실업률이 2021년 9.8%에서 2022년 28.9%로 증가했다고 했다. 국가 고용 서비스(State Employment Service)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 기준 우크라이나에 23만9000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ILO(국제노동기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실업률은 28.3%(420~480만 명)이다. 우크라이나 미래 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인구수를 2,900만 명으로 추정했다. 그중 공무원을 빼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수는 600~700만명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러-우 사태로 인해 경제의 3분의 1 기능 상실하게 되었다. 옥스퍼드이코 노믹스(Oxford Economics) 경제 위험 지수 164개국 중 161위 차지했다.

다. 경제 전망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2023년 GDP 성장률을 3.2%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올 여름에 끝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예측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달러 환율에 관해서 자국 통화의 느린 평가 절하를 예측했다. 달러의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42.2흐리브나, 연말에는 달러당 45.8흐리브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인플레이션은 28%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2022년 10월에 2023년 GDP 성장률 4%, 인플레이션 21%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에 중앙은행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돼 1월 경제 전망 발표 때 수치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년 1월 중앙은행은 GDP 성장률이 0.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안보 위험 감소, 물류 회복, 수확량 증가로 2023년 18.7%, 2024년 10.4%, 2025년 6.7%로 예측했다.

세계 국제기구들의 우크라이나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GDP는 1% 정도 약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인플레이션은 22.5% 수준으로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GDP 3.3%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2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4년 예산 규모를 865억 달러로 책정했으며 국가 수입을 491억 달러로 예상하며, 지출은 일반, 특별 지출 포함해서 약 930억으로 예상했다. 이를 볼 때, 2024년 약 439억 달러의 해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해외원조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국제 금융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상원조 외에는 차관을 받는 것으로 그만큼 채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54.2%를 국방 및 보안에 사용될 예정이며, 그 외 사회보장(15.0%), 보건(6.5%), 교육(5.7%)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제 개발이나 재건/복구관련 예산은 국가 예산에 거의 포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4년 3~4%대의 성장률 전망되나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2년 2월에 벌어진 러-우 사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가까이 장악했고, 동 사태가 1년 반 정도 흘러오며 우크라이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 예산사정도 점점 악화되면서 2024년 경제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의 약 60%는 해외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무상원조와 차관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 부족뿐 아니라, 채무상환 또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전망 보고서 등을 종합해볼 때 2024년 3~4%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4.3%, EBRD 3%, IMF 3.2%, EU 4%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률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러-우 사태 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4. 정치

가. 정치체제

우크라이나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혼합된 체제다.

단원제로 450석 중 공석 46석이다. 주요 정당으로는 인민의 일꾼(244석), 인생을 위한 야권연단(44석), 유럽연대(27석), 조국당(25석), 미래당(22), 신뢰당(20), 목소리(20석), 무소속(20석)이 있다.

나. 최신동향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중요성을 십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러시아 등 CIS 국가로부터는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리 외교를 전개해 왔다.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각종의 기자재 및 원부자재 공급원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고, EU 및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을 위한 자본과 노하우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파트너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EU가입, NATO 가입을 희망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EU/나토국들과 국경을 접하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흑해와 아조프해에 접하고 있어 군사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러-우 사태가 일찍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해가 막심하다. 사회경제적 손실, 병력 손실펮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주거용건물, 에너지 시설, 의료 및 교육 시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1년간(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러-우 사태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손실액 1,3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서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앞으로 러-우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EU와의 관계: 우크라이나는 경제에너지 측면에서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유럽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EU에 가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독립했지만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를 의존해왔다. 그러나 2014년에 동부내전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갈등이 생기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현재까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놓치고자 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반러시아 감정을 갖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 공급망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다각화 등을 통해 과도한 러시아 의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 중이다.

라. 정책 · 법령

우크라이나는 EU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EU가 요구하는 정책과 법령에 맞게 국내법화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부패 정책 추진 중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CPI)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33점으로 전년도 대비 1점 상승하여 평가 대상국 180개국 중 116위를 차지했다. 해외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EU 가입과 나토 가입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IMF의 특정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부패 척결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 기관(National Agency on Corruption Prevention)은 “2023~2025년 국가 부패 방지 프로그램”을 발표, 반부패 전략에서 확인된 73가지 문제를 272개의 결과 달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부패방지 프로그램 시행 결과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방지 전략에서 우선순위 영역은 공정한 법원, 검찰청 및 법 집행 기관(fair court, prosecutor's offic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경제 분야 국가 규제(state regulation of Economy)/관세 및 조세(customs affairs and taxation)/경제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the economy)/건설, 토지 관계 및 인프라 시설(construction, land relations and infrastructure)/방위(defense)/보건, 교육, 과학, 사회생활(health care, education, science and social life)이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1차산업이 발달했으나 서비스 산업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2020년도 1차산업의 비중이 9.2%, 2차산업 17.4%, 3차산업이 73.4%를 차지했다. 주요 산업부문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도 소매업이 전체 GDP의 1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공업(10.1%)과 농림어업(9.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및 동부 내전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4년, 2015년 상반기 산업 생산 지수는 각각 10.1%, 13.4%로 떨어졌다. 민스크 평화협정에 의거, 2015년부터 동부지역 상황이 다소 안정을 되찾으면서 2015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 2016년에 전년대비 2.8% 성장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5월부터 생산지수가 급속도로 감소하여 우크라이나 경제부 예상치 -0.6% 보다 낮은 -1.8%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월에는 우크라이나 산업생산지수가 더 악화되어 전년동월 대비 -5.1%, 전월 대비 -8.4% 나 줄어들었다. 생산 지수가 감소한 이유는 어려운 우크라이나 국가재정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산업시장에도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우크라이나의 산업 생산량은 2020년에 비해 1.1% 증가했다. 특히 2021년 가공 산업의 경우 생산량이 2020년 대비 1.5%, 채굴 산업의 경우 0.9%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무연탄 생산량은 2,301만 톤(2020년 대비 3.2% 증가), 원유 생산량은 165만 톤(1.0% 감소), 가스 콘덴세이트 74만 3500 톤(1.1% 증가), 천연가스 193억 6000만 입방미터를 생산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인 농업, 철강 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사태 이전 우크라이나 전 농산물의 89%가 해상운송을 통해서 수출이 됐으나 이후 항구가 봉쇄돼 곡물 수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 그러나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Black Sea Grains Initiative)이후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2022년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 규모는 230억 달러로, 2021년 수출액 278억 달러 대비 17% 감소했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 농업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 지대로 꼽히는 흑토 지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미의 프레리, 아르헨티나 팜파스와 함께 세계 3대 곡창 지대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 세계 흑토의 약 28%가 우크라이나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이 우크라이나 GDP에서 10%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 대비 농업 비중은 45%에 달한다. 비옥한 흑토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농산물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유럽, CIS, 북아프리카 등에 수출하기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해바라기씨, 옥수수, 밀, 보리 콩 등은 전 세계 수출량 Top10에 들어간다.

우크라이나 농업 생산은 가족 중심의 중/소작농(5-3,000헥타르 규모)이 주도하고 있으며, 신기술에 도입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인근 유럽 국가 대비 토지 면적당 농업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농업 환경을 갖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농가 대부분이 농업을 연중 지속 사업이 아닌 계절성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산량 덕에 신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 스마트 농업 활용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 우크라이나 대형 Agro-Holding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우 사태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항구는 봉쇄되어 수출할 길이 막히게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크라이나-터키-UN-러시아는 2022년 7월 22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맺게 되었다. 7월 22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이후 8월 1일 터키에 대한 곡물 출항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3개의 항구 Odessa, Chornomorsk, Pivdennyi를 통해서 곡물 수출이 시작됐다. 그러나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은 러시아의 반대로 기간을 조금씩 연장하고 있어 언제까지 협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IT 산업

IT 산업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로 수출규모가 5년 동안 157% 성장했다. 2022년 IT 서비스의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은 국가 GDP의 약 2.7%이었다. 2019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산업은 2021년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에 비해 36% 증가했으며 2021년 컴퓨터 서비스 수출은 68억 달러에 달했다. IT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향후 4년 동안 IT 산업은 370~440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창출하고 우크라이나의 외화 수입 구조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 지수(Good Country Index)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169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인증된 IT 전문가 보유국가로 3위를 차지했고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아웃소싱 분야에서 동유럽 최고의 국가이다.

○ 철강산업

철강산업은 농업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핵심산업 중의 하나다. 세계 철강협회에 따르면, 2021년 우크라이나는 2140만 톤의 철강을 생산했으며 생산량 세계 14위를 차지했다. 2021년 수출액은 228억 달러로,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의 33.5%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철강산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보다는 저렴한 원자재,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2014년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 내전으로 도네츠크주, 루간스크주가 중앙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철강산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주요 철광석 산지는 우크라이나 중부지역에 집중돼 있으나 철광석을 제련하는 고품질의 석탄과 제련 공장이 주로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내전으로 동부지역에 있는 철강 공장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며, 철강 제품 생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철강 및 철강 제품 수출량이 2014년 이후 감소했고 관련 제품 수입이 증가했다.

2019년 코로나 19로 인해 철강산업은 또 한 번의 타격을 입었다. 2019년 생산량 2080만 톤, 2020년 생산량 2060만 톤으로 낮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철강산업도 조금씩 회복됐다. 2021년 생산량 2140만 톤으로 회복됐고 수출도 증가해 우크라이나 기업들의 수익도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장기 투자 계획을 갖고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 2021년 기업들의 투자액은 20억 달러를 넘었다. 철강 기업들은 2022년 철강산업 현대화 관련한 많은 프로젝트와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는 제품 개발, 직접환원철(DRI) 코일 생산, 전기로 제강 개발에 주력하고자 계획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작으로 철강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동부 지역에 있던 제철소가 파괴되거나 손상됐고 러시아 점령 지역에 위치해 있어 생산이 감소했다. 파괴된 Mariupol 지역 제철소 두 곳은 우크라이나 철강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했었다. 그 외 대부분의 기업도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또는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 손상 위험이 여전히 높다. 큰 제철소가 있는 Kryvyi Rih 근처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2022년 야금 공장의 작업량은 사태 이전과 비교해 평균 85%, 광산 기업은 75~80% 감소했다고 한다. 주요 수출 운송 수단이었던 해상 물류가 막혀 수출도 불가능하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철강 제품의 70%를 해상 운송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했다. 곡물은 우크라이나-러시아-터키-UN이 맺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 협정으로 3개의 항구를 통해 수출이 가능하게 됐지만, 철강제품의 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은 차단됐다. GMK 센터에 따르면, 항구 봉쇄로 인해 매달 4억 2천만 달러의 수출 수익 손실을 보게 됐다고 한다. 해상 운송이 가능해지면 철광석 130만 톤, 선철 15만 톤, 철강 반제품 20만 톤, 완제품 22만 톤 정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에너지 산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 Zaporizhzhya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총 4개의 원자력 발전소, 16기의 원자로를 소유하고 있다.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비중은 원자력 55.1%, 천연가스·석탄 29.3%, 수력 6.7%, 신재생 8.0% 순이다. 우크라이나는 전력을 주로 몰도바에 수출했으며, 2022년 3월 16일에 유럽의 송전 시스템 운영 네트워크인 ENTSO-E는 유럽의 대륙 전력 시스템과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연결이 되면서 유럽에 본격적으로 수출도 하게 됐다. 그러나 2022년 10월 10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인프라 공격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에너지 인프라의 약 50%가 손상됐다. 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전력 인프라 직접적 손실액은 약 64억9400만 달러다. 배전시설 피해액은 3억 5400만 달러, 송전 시설 피해액은 20억 달러, 발전소 시설 피해액은 41억4000만 달러라고 한다. 발전소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화력 발전소 23억3300만 달러, 원자력 발전소 8억 4300만 달러, 재생 에너지 발전소 6억8500만 달러, 열병합 발전소 2억 7900만 달러이다. 수력양수 발전소 직접적 손실액은 4억6400만 달러이다. 그러나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 특히 대외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러-우 사태 전에는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수출입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됐다. 해상 및 항공 물류 통로가 막혀 우크라이나는 철도와 도로 운송을 통해서 수출입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철도 회사 Ukrzaliznytsia는 화물 처리량을 늘리고 EU와 맺은 우크라이나-EU 공동 운송 및 상품무역의 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약(EU-Common Transit Countries' Convention on a Common Transit Procedure and the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of Formalities in Trade in Goods)으로 통관 절차를 가속화해 원활한 육로 운송이 가능하게 됐다. 2022년 7월 22일 우크라이나-터키-러시아-유엔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Black Sea Grains Initiative)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8월부터 흑해 3개 항구를 통한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돼 우크라이나 수출이 증가했다.

경제부 운영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는 수출규모 441억 달러(2021년 대비 35% 감소), 수출량은 9,980만 톤(2021년 대비 38.4% 감소)의 상품을 수출했다. 해상 운송을 통해 5,386톤, 2위는 철도 3,373만 톤, 3위는 도로 운송 1,200만 톤이다. 우크라이나 2022년 수입규모는 555억 달러, 수입량은 3,034만 톤 이상으로 이중 1,100만 톤이 도로 운송을 통해 이뤄졌다. 그다음으로 철도 989만 톤, 해상 운송 716만톤이다.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끊어진 공급망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항구 운송에 대한 양질의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러-우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됐다. 항구 운송이 막혀 2022년 가까운 이웃 유럽 국가들과의 수출입 규모가 증가했다. 우크라이나의 대유럽 수출이 2021년 대비 4.2% 증가했다. 무엇보다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몰도바와 같은 국가와의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 국가는 폴란드 67억 달러, 루마니아 39억 달러, 터키 29억 달러이다. 우크라이나 주요 수입 국가는 중국 87억 달러, 폴란드 55억 달러, 독일 44억 달러이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594,028,280
2	폴란드	3,300,458,411
3	러시아연방	3,251,686,374
4	튀르키예	2,619,074,499
5	이탈리아	2,418,404,475
6	독일	2,384,394,765

7	이집트	2,255,828,509
8	인도	2,024,882,534
9	네덜란드	1,848,730,384
10	헝가리	1,563,417,211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117,745,668
2	폴란드	3,275,076,486
3	러시아	2,708,193,657
4	터키	2,435,407,606
5	독일	2,072,421,670
6	인도	1,972,847,574
7	이탈리아	1,925,378,253
8	네덜란드	1,808,772,610
9	이집트	1,617,941,864
10	벨라루스	1,336,187,686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7,961,150,973
2	폴란드	5,226,226,442
3	튀르키예	4,140,447,166
4	이탈리아	3,468,668,736
5	러시아연방	3,414,669,167
6	독일	2,866,950,748
7	인도	2,528,196,016
8	네덜란드	2,528,298,499
9	이집트	1,943,963,629
10	스페인	1,676,468,601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폴란드	6,694,972,554
2	루마니아	3,904,663,734
3	튀르키예	2,947,622,686
4	중국	2,489,546,652
5	헝가리	2,276,907,957
6	독일	2,270,465,059
7	이탈리아	1,652,522,821
8	스페인	1,577,491,151
9	네덜란드	1,544,167,776
10	슬로바키아	1,510,434,094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9,155,808,983
2	러시아	6,978,351,374
3	독일	5,951,109,312
4	폴란드	4,057,774,409
5	벨라루스	3,754,111,552
6	미국	3,282,925,720
7	터키	2,349,808,119
8	이탈리아	2,069,483,457
9	프랑스	1,645,746,261
10	스위스	1,518,295,923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	-----	--------

1	중화인민공화국	8,255,128,783
2	독일	5,333,075,292
3	러시아	4,552,257,315
4	폴란드	4,084,708,021
5	미국	2,949,874,191
6	벨라루스	2,873,864,003
7	터키	2,407,503,178
8	이탈리아	2,124,924,405
9	프랑스	1,475,067,443
10	헝가리	1,204,947,700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0,927,427,248
2	독일	6,146,500,138
3	러시아연방	6,086,876,646
4	폴란드	4,948,705,467
5	벨라루스	4,819,317,023
6	미국	3,423,221,981
7	튀르키예	3,249,699,160
8	이탈리아	2,647,431,756
9	스위스	1,966,894,694
10	프랑스	1,754,322,764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EU	28,826,727,441
2	중국	8,658,732,099
3	폴란드	5,849,280,659
4	독일	4,615,761,442

5	튀르키예	3,443,797,007
6	미국	2,450,343,264
7	불가리아	2,054,220,462
8	이탈리아	1,798,983,725
9	인도	1,681,987,190
10	체코	1,571,858,703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22년 주요 수출 품목은 식품 234억 달러, 금속 및 금속 제품 60억 달러, 기계 및 운송 장비는 42억 달러이다. 2022년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 및 운송 장비 160억 달러;

광물 연료, 석유 제품은 131억 달러, 화학 산업 제품 96억 달러이다.

농산물은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한다. 2021년 186억 달러 상당의 해바라기유와 곡물을 수출했다. 러-우 사태로 인해 농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2022년 7월 22일 우크라이나-터키-러시아-유엔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Black Sea Grains Initiative)로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됐지만 2021년 수출 규모를 회복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 농산물의 89%가 해상 운송을 통해서 수출했었기 때문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 규모는 230억 달러로, 2021년 수출액 278억 달러 대비 17% 감소했다.

철금속은 우크라이나 수출에서 2위를 차지했다. 철강 생산의 80%를 해외로 수출했었다. 그중 70%를 해상 운송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했다. 러-우 사태로 항구 봉쇄가 되어 수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됐다. 대부분의 철강 회사들이 우크라이나 동부나 남부, 최전선 또는 점령지역에 위치해 있어 생산이 크게 감소하여 수출 규모 또한 감소하게 됐다. 러-우 사태전까지 철강 제품의 1/3 정도가 유럽으로 수출됐는데, 2022년에 철강 제품의 60% 이상이 유럽으로 수출됐다.

2021년 우크라이나는 가스 수입을 6배 줄였지만, 높은 유럽 가격으로 여전히 수입 금액은 50억 달러나 된다. 2021년 우크라이나는 60억 달러 상당의 석유 제품을 수입했다. 러-우사태 이후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공급이 중단되어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국가의 공급을 늘리고 있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00590	기타	5,209,736,000
2	151211	조유(粗油)	3,798,221,000
3	100199	기타	3,652,739,000
4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774,258,000

5	260112	응결시킨 것	1,623,525,000
6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1,354,894,000
7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1,294,185,000
8	1205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1,266,717,000
9	120190	기타	1,166,357,000
10	23063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975,586,000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00590	기타	4,863,664,000
2	151211	조유(粗油)	4,702,869,000
3	100199	기타	3,589,820,000
4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2,542,234,000
5	260112	응결시킨 것	1,697,083,000
6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1,237,565,000
7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1,204,790,000
8	23063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1,146,653,000
9	1205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987,340,000
10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964,981,000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00590	기타	5,875,332,000
2	151211	조유(粗油)	5,655,091,000
3	100199	기타	5,064,022,000
4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3,917,731,000
5	260112	응결시킨 것	2,982,077,000

6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1,940,876,000
7	1205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1,664,654,000
8	72011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642,554,000
9	720839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1,474,110,000
10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1,401,679,000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00590	기타	5,919,059,000
2	151211	조유(粗油)	4,658,313,000
3	100199	기타	2,648,477,000
4	260112	응결시킨 것	1,477,208,000
5	1205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1,448,055,000
6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436,370,000
7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63,153,000
8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1,179,335,000
9	120190	기타	865,308,000
10	151219	기타	834,247,000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4,456,330,851
2	271121	천연가스	2,908,433,868
3	270112	유연탄	2,349,255,580
4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1,262,278,259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245,869,939
6	300490	기타	1,207,358,150
7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969,585,042
8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909,281,996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833,258,812
10	31052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500,416,88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2,782,826,882
2	270112	유연탄	1,410,664,449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899,687,754
4	271121	천연가스	893,492,300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745,388,465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39,854,121
7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712,245,210
8	300490	기타	709,215,296
9	30046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663,836,743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89,736,812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4,280,241,348
2	271121	천연가스	2,028,458,722
3	270112	유연탄	1,994,787,593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506,716,444

5	30046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1,348,176,141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164,118,451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898,913,890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49,549,037
9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671,395,739
10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578,375,225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0,822,098,749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576,875,482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371,792,795
4	300490	기타	1,993,162,230
5	271121	천연가스	1,928,346,152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149,170,976
7	270112	유연탄	1,029,969,134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905,785,095
9	930690	기타	830,137,579
10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75,030,323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 교역은 크지 않은 편인데, 교역 총액이 10억 달러를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국 간 교역물품 목록이 제한적 이어서, 교역규모도 비교적 등락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물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이 늘면서, 교역 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어진 親서방 反러 시민운동인 유로마이단 운동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유로마이단 운동 이후 친서방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전쟁 등 정세 불안이 이어 졌다. 우리 수출 또한 이 당시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에 큰 영향을 받았다.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출규모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 지만, 2013년에 6억3000만 달러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이후에도 계속 수출이 줄어들다가 2017년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 다.

2020년 코로나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2021년 들어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에 힘 입어, 자동차, 철강판, 화장품, 화학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이다. 유로마이단 운동, 크림반도 병합 등 일련의 사건 후 2014년 우 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은 $\Delta 6.6\%$ 를 기록했고, 2015년에도 $\Delta 9.8\%$ 로 침체를 겪었다. 2016년 이후 매년 2, 3%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차츰 회복세에 접어 들었다. 대외 수출을 보면, 2016년 363억7000만 달러에서 2021년 1~11월에 612억 7,000만 달러로 70% 가까 이 늘어났다. 수입 또한 2016년 391억 8,000만 달러에서 2021년 1~11월 639억 6,000만 달러로 63% 정도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도 주요한 요인이지만,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주력품목의 수출이 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수출 주력품목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및 부품, 철강제품, 화장품, 합성수지 등이다. 중고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수출은 2020년, 2021년 들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차량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동차부품 또한 주력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아울러, 아연도강판 등 철강판 제품, 건설중장비 등 기계류, 각종 소비재 제조에 쓰이는 화학원료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이다. 유로마이단 운동, 크림반도 병합 등 일련의 사건 후 2014년 우 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은 -6.6% 를 기록했고, 2015년에도 -9.8% 로 침체를 겪었다. 2016년 이후 매년 2, 3%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차츰 회복세에 접어 들었다. 대외 수출을 보면, 2016년 363억 7000만 달러에서 2021년 1~11월에 612억 7,000만 달러로 70% 가까이 늘어났다. 수입 또한 2016년 391억 8,000만 달러에서 2021년 1~11월 639억 6,000만 달러로 63%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물류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對우크라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우크라이나 거래는 보통 항공과 해상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항공과 해상 물류가 막히면서 우크라이나-한국과의 교역이 감소하게 됐다. 현재,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거래는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 항구- 육로 운송을 통해서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다.

對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타이어, 철강재, 화장품 등이었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對우크라이나 수출은 2022년 한 해 2억 1,693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7% 감소했다. 2023년 10월까지 3억 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1% 늘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대우크라이나 무상원조 물품이 수출로 잡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정상적인 수출거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식물성 유지, 곡물, 사료 등 원부자재였다. 러-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 해 수입이 7억 48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8.2% 증가했는데, 이는 사태 전에 이미 계약되어 수입된 곡물로 인한 것이다.

2023년 1~10월까지 수입 규모는 5억 9,400만 달러이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9	349	456	-107
2020	394	626	-232
2021	581	309	272
2022	217	705	-488
2023	312	594	-28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러-우사태 전 우리나라의 對우크라이나 수출 품목은 주로 자동차(중고차 중심), 자동차부품(타이어 포함), 철강제품, 합성수지 등 화학제품, 미용용품(화장품/필러 등),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었다. 상위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의 60~70%를 차지했다. 수출 유망품목으로는 ①(소비재) 중고차 등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 미용용품을 들 수 있고, ②(산업재) 철강제품,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등이었다.

러-우사태 전 우리나라의 對우크라이나 수입 품목은 사료·곡류·식물성유지 등 농산물, 제재목 등 임산물, 철광·합금철 등 철강제품, 기타 화학원료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이 품목들이 상위 10대 수입품목인데,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원부자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러-우사태로 인하여 수출입이 급격히 줄어 상위 10개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2023년 10월 기준 화물자동차가 7,800만 달러로 가장 많다. 화장품이 2위 5,400만 달러를 수출했고 소비재로는 유일하게 화장품이 상위 10대 수출 품목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10월 기준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곡물이 3억 100만 달러로 수입품목 1순위이다. 농산물 중에는 곡류, 사료, 식물성 유지, 박류가 상위 10대 수입 품목에 속해 있다.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2	화물자동차	28	0	27
2	2273	화장품	30	0	29
3	7411	승용차	28	2	26
4	8414	배전 및 제어기	0	0	0
5	3203	타이어	8	0	8
6	7331	의료용기기	11	0	11
7	7420	자동차부품	9	0	8
8	2262	의약품	9	2	7

9	6134	아연도강판	10	0	10
10	8147	의료용전자기기	5	0	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2	화물자동차	78	0	78
2	2273	화장품	54	0	54
3	7411	승용차	32	0	32
4	8414	배전 및 제어기	21	0	21
5	3203	타이어	15	0	15
6	7331	의료용기기	14	0	14
7	7420	자동차부품	11	0	11
8	2262	의약품	10	1	9
9	6134	아연도강판	10	0	10
10	8147	의료용전자기기	7	0	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11	곡류	0	316	-317
2	0136	사료	0	225	-225
3	8259	기타난방및전열기기	0	26	-26
4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0	61	-61
5	0131	식물성유지	0	29	-29
6	0135	박류	0	6	-6
7	7472	항공기부품	0	0	-1
8	4412	직물제의류	0	4	-4
9	7111	원동기	0	0	0
10	0312	제재목	0	3	-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11	곡류	0	301	-301
2	0136	사료	0	228	-228
3	8259	기타난방및전열기기	0	11	-11
4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0	10	-10
5	0131	식물성유지	0	7	-7
6	0135	박류	0	6	-6
7	7472	항공기부품	0	6	-6
8	4412	직물제의류	0	4	-4
9	7111	원동기	0	3	-3
10	0312	제재목	0	2	-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철강 형강 제품

HS CODE	7216	수입액 (US\$백만)	10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0
선정사유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철강 산업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자체 생산이 불가함		
시장동향	<p>우크라이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철강 산업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큰 피해를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철강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Mariupol 지역 제철소 두 곳이 파괴됨 * 지리적으로 철강 산업이 우크라이나 동부 또는 남부에 있어 시설 손상 위험이 여전히 큼 * 2022년 야금 공장의 작업량은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85%, 광산 기업은 75~80% 감소했다고 함 		
경쟁동향	2023년 터키가 수입시장의 72.29% 점유, 그 뒤로 폴란드(16.34%), 독일(16.34%)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자재, 소비재 등 필수적인 품목들을 다시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설비, 원부자재 등이 필요하여 바이어들의 문의가 있어 이 바이어들과의 협업이 효과적일 것임 		

○ 자동차 (중고차)

HS CODE	8703	수입액 (US\$백만)	3,614
수입관세율(%)	10.0 / 12.0	대한 수입액 (US\$백만)	80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차 수출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산 중고차 인기가 최근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 * '20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로 수출한 중고차는 52백만 달러, 우크라이나의 對韓 자동차 수입에서 65% 가량 차지하고 있음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자동차제조협회 자료에 따르면, '20년 한 해에 신차는 85,500대 판매된 반면, 중고차는 353,400대 판매되었음 * 가장 인기있는 브랜드는 폴크스바겐, 포드, 스코다 등인데, 현대차는 6위를 차지했음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매달 약 1천대 가량 한국산 중고차가 수입되고 있다고 함 * 현재 해상 물류의 어려움으로 잠시 수입시장이 감소했지만 물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보임
<p>경쟁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미국, 독일, 폴란드 등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국 및 우크라이나 인근 유럽국가들과 경쟁 중임 *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수입대상국 중 금액 면에서 8위 차지
<p>진출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시장은 크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승용차 시장과 택시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시장으로 나눌 수 있음 * 특히, 택시의 경우, 소나타/K5 등 한국에서 택시로 운행했던 LPG차량을 매우 선호하고 있음 * 한국 내 차량경매 사이트와 연계해서, 현지 수입수요를 모으고 있는 바이어와 협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자동차부품

<p>HS CODE</p>	<p>8708</p>	<p>수입액 (US\$백만)</p>	<p>627</p>
<p>수입관세율(%)</p>	<p>0.0 / 1.0 / 5.0 6.0 / 8.0 / 10.0</p>	<p>대한 수입액 (US\$백만)</p>	<p>24</p>
<p>선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수입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부품 수입도 증가 추세임 * 특히, 한국산 중고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부품 수급수요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음 		
<p>시장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에는 대형 물류창고를 가지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유통기업이 5개사 정도 있음 * 주로 유럽산 부품을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음 * 한국산 부품도 적지 않게 취급하고 있는데, 한국 내 부품 제조사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지만,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가 많음 		
<p>경쟁동향</p>	<p>중국, 독일, 러시아,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 등이 상위권 수출국가임. 한국은 수입대상국 중 9위 차지</p>		
<p>진출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비스 등 순정부품(Genine)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제조사 브랜드의 Non-Genine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음 * 특히, 상위 랭크 유통기업은 한국 제조사와 직거래를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로컬 브랜드로 OEM하는 수요도 있음) * 상위 유통기업 대상 브랜드 홍보가 유효할 수 있음 		

○ 의료기기

HS CODE	9018	수입액 (US\$백만)	426
수입관세율(%)	0.0	대한 수입액 (US\$백만)	32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 * 사립병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기기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내 사립병원 수는 약 5만개로 추산됨 * 전쟁 후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시장동향	우크라이나 현지 제조기업은 약 250개사인데, 의료기기 종류가 매우 제한적임		
경쟁동향	중국/독일/일본/미국/이탈리아 등, 한국은 수입대상국 5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심혈관/암/신진대사 관련 질환이 늘고 있음. 관련 의료장비 수출이 유망해 보임 * 현지 제조사와 협력을 통해 시장진출 확대도 바람직한 방안임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인프라

선정사유	러우 사태로 우크라이나 인프라 피해규모가 커 재건 사업의 주는 인프라 구축일 것으로 예상됨
시장동향	전력산업, 물류시설, 의료시설, 정보통신, 도로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건 프로젝트 진행이 이뤄질 것임
경쟁동향	인근 튀르키예와 폴란드 등 유럽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
진출방안	EDCF를 통한 진출이나 미국, 유럽 등 다국적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구성하여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우크라이나-조지아 FTA	우크라이나, 조지아	1995-01-09	1996-06-04	
우크라이나-마케도니아 FTA	우크라이나, 마케도니아	2001-01-18	2001-07-05	
우크라이나-EFTA FTA	우크라이나,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10-06-24	2012-06-01	
CIS 역내 자유무역협정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2011-10-18	2012-09-20	러-우크라이나 갈등으로 2016년 1월부터 러-우크라이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파기
우크라이나-EU DCFTA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회원국	2014-06-27	2017-09-01	
우크라이나-캐나다 FTA	우크라이나, 캐나다	2016-07-11	2017-08-01	2022년 4월 11일 자유 무역 협정의 확대에 합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2019-01-21	2021-01-01	
우크라이나-영국 FTA	영국	2020-10-08	2021-01-01	
우크라이나-튀르키예 FTA	튀르키예	2022-02-03		비준 예정

<자료원 : 우크라이나 외무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우크라이나-베트남 FTA	베트남	협상중	
우크라이나-인도네시아 FTA	인도네시아	협상중	
우크라이나-튀니지 FTA	튀니지	협상중	
우크라이나-요르단 FTA	요르단	협상중	

<자료원 : Ukrinform>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06031100	생화 장미(Fresh roses)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	○ 부과기간 : 2021.5.16 ~ 2024.5.15	○ 판정결과 · 1년차 : 56% · 2년차 : 44.80% · 3년차 : 35.84% * 러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9일부터 수입 전면금지
2	3901209000,3904100000	폴리머 물질(Polymeric materials)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59개국 제외)	○ 부과기간 : 2020.11 ~ 2023.11	○ 판정결과 · 1년차 : 12.4% · 2년차 : 12.0% · 3년차 : 11.5% * 2022.11.5일, 계엄령 기간 동안(Martial law 종료 시까지) 조치 유예 결정 * 러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9일부터 수입 전면금지

3	2807000000	황산과 발연황산 (Sulphuric acid and fuming sulphuric acid; oleum)	세이프가드(규제중)	전세계	○ 판정결과 · 1년차 (2020.09.01~2022.08.31): 전세계 (55,427t) · 2년차 (2022.09.01~2023.08.31): 전세계 (63,741t) · 3년차 (2023.09.01~2024.08.31):전세계 (73,302t)* 러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9일부터 수입 전면금지 ○ 부과기간 : 2018.9.1 ~ 2024.8.31
---	------------	---------------------------------------------------------------	------------	-----	--------------------------------------------------------------------------------------------------------------------------------------------------------------------------------------------------------------------

수입금지품목

우크라이나의 해외경제활동에 관한 법률(The Law of Ukraine “about Foreign Economic Activity)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금지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인명,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제품/전쟁, 위법, 인종, 국가차별 등에 대한 선전 제품/지식재산권 위반 제품이다.

2022년 4월 9일 우크라이나 내각은 침략 국가인 러시아 수입품목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품 원산지 국가에 상관없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입 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러시아 제품 수입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말부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고, 주기적으로 상품 목록이 업데이트 되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우크라이나-EU 간 연합협정이 체결된 이래 우크라이나는 EU의 제품 표준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UkrSEPRO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독자적 인증 시스템이 존재하였으나, '우크라이나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법률(No.124)'에 의해 해당 인증은 폐기되었다.

대신 우크라이나-EU 연합협정에 의거, 우크라이나의 표준을 EU의 표준(Harmonized standards)에 준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안전규정, 인증 등 제반서류가 막힘 없이 상호 인정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인증제도를 매년 EU 표준에 맞춰 바뀌어나가고 있지만,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유럽산 제품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크라이나 자국의 기술 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 규정은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 산하 기술규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인증/표준/품질 관리 과학 연구 트레이닝 센터(USRTCCSQ)에서 개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자국의 TR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EU의 적합표시 마크인 CE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별도로 우크라이나 TR을 받고 통과해야 한다. 물론, CE가 있다면, 우크라이나 TR을 받는데 훨씬 수월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 된다.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 다시 기술 인증서(Certification)와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2가지로 구분된다. 기술 인증과 적합성 선언 모두 제품에 따라서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인증 취득 여부를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2가지 기술 규정 서류가 없어도 우크라이나로 수출 가능한 제품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2가지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의무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1월 20일 화장품품목에 관하여서도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 을 시행하도록 승인했다. 18개월 유예 기간을 갖고 2022년 8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전시 상황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기되었다.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 인증서(Certification): 제품에 따라 강제적 혹은 자발적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인증(Mandatory Certification)이 필요한 제품들은 아래의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법률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약 180여 개의 국가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필요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나 인증서를 발급받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강제 인증 품목 리스트(우크라이나어만 제공)은 최고회의 법률 정보 홈페이지 (<http://zakon1.rada.gov.ua/laws/show/z0466-05>)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일부 제품들의 경우 이미 EU 표준화를 우크라이나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있어 EU의 관련 인증을 이미 취득했을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별도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 유럽의 CE 인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에서의 인증 절차가 조금 간편해지기도 한다.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사가 현지 표준에 맞게 제품을 제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우크라이나의 적합성 선언서는 EU 표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적합성 선언서 발급 또한 앞서 언급했던 국가 공인 인증 에이전트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 산업 기기, 의료 기기 및 환경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은 경우 적합성 선언서를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적합성 선언서 발급이 필수적인 제품 리스트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합성 선언서 필수 제품 리스트(우크라이나어만 제공)는 최고회의 법률 정보 홈페이지(<https://zakon.rada.gov.ua/laws/show/z0122-07#Tex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인증제도: 기술 규정 외에도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 인증(DSTU)과 위생역학검사(Sanitary epidemiological control), 생태 검사(Ecological control), 방사선 검사(Radiological control)와 같은 비관세 규정들이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 인증(DSTU)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우크라이나가 제정한 산업 표준에 맞춰 제작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국가 품질 보증 제도이다. 우리의 KS마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며, 삼각뿔 모양의 심볼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 표준은 의무 취득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취득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판매 유통하는 일반 소비재 품목과 식료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해당 인증을 취득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비관세 규정들의 경우에는 위생역학검사, 생태 검사, 방사능 검사, 동식물 위생 검사, 식품 위생 검사 등이 있다. 해당 검사는 수출하는 제품에 따라 받아야 할 검사가 구분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안정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검사들은 우크라이나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청(Державна служба України з питань безпечност харчових продуктів та захисту споживачв)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 검사 또한 의무 취득 사항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세관에서 해당 서류의 유무를 검토하기 때문에 제품 수출 시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와 해당 서류의 필요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지난 '18년 10월에 방사능 검사, 생태 검사, 위생역학검사가 공식 폐지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세관에서는 수입 통관 시 여전히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BT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위해 모든 표준을 EU에 맞춰나가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비효율적인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분위기이다. 다

만 여전히 부정부패가 심해 세관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 경우 일부러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비효율적 약속은 남아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로 수출이 금지된 제품과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TBT를 통해 제품 유통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별도의 비관세장벽은 대부분 없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기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기에 수입 전 바이어에게 인증관련 확인이 필요하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우크라이나의 수입 관세는 크게 봤을 때 일반관세율(Full rates), 최혜국관세율(MFN rates), 특혜관세율(Preferential rates) 3가지로 나뉜다.

일반관세율(Full rates)은 최혜국관세율 대비 2~10배가량 높게 적용된다. 그러나 2008년 우크라이나 WTO에 공식 가입하면서부터 WTO 회원국들에 최혜국관세율(MFN)을 적용하면서부터 실제 일반관세율 적용을 받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혜관세율(MFN)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나 다른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한편, 수입관세 외에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부가가치세(VAT) 20%가 부과되며, 일부 특정 품목에 한해서는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주류, 담배류, 연료, 전기, 승용차, 오토바이 등이 있다.

2022년 3월 24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계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수입품 관세·부가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통관서류 작성 등 수입 절차 간소화 되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9일부로 수입품목 허가제 철폐하기로 결정하면서 7월 1일부로 다시 관세·부가세 부과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변경된 HS협약(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2022년 변경된 유럽 연합 품목 분류표에 기초하여 우크라이나 무역 품목분류표 개정할 예정이다. 국제 무역 거래가 없는 품목은 제외시키고, 현대기술을 도입하여 생산된 새로운 품목은 분류표에 새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영어로 된 서비스가 없고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로 HS Code에 따라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다. 품목별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https://qdpro.com.ua/ukzed>로 접속한 후 품목별 HS Code 선택하여 관세율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을 확인할 때 사이트가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돼 있으므로 구글 툴바(Google tool bar) 등의 번역 기능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어를 영어로 번역해 사용하면 사이트를 이용하기 훨씬 용이하다.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우크라이나행 화물은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에 있는 3개 항구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들어온다. 우크라이나로 들어온 화물은 주로 철도, 트럭 등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내륙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로는 오데사(Odessa) 항구, 초르노모르스크(Chornomorsk) 항구, 유즈니(Yuzhny)항구가 있다. 상기 3개 항구를 통해 우크라이나 해상 화물의 60%가 처리되며, 오데사와 초르노모르스크 항구는 대규모 컨테이너 취급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은 항구로는 유즈니(Yuzhny)항구가(화물 61.66 MT), 초르노모르스크(Chornomorsk) 항구(화물 23.86 MT), 오데사(Odessa) 항구(화물 23.29 MT)이다. 각각 전년 대비 물동량은 14.5%, -8.1%, -8.8%이다. 이 중 유즈니(Yuzhny)항구는 해상 화물의 1/3을 취급하고 있다.

○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침공으로 모든 무역항이 막혀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항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상을 통한 수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우크라이나의 주요 국제공항은 키이우주와 유럽과 가까운 리비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항으로는 보리스필(Boryspil)과 즐랴니(Zhuliany)를 꼽을 수 있다. 보리스필(Boryspil) 공항은 국제선 운항중이며, 즐랴니(Zhuliany)는 국내선과 근거리 국제선 운항 중이다.

○ 주요 공항 물동량: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 전체 공항 물동량은 총 8만 8,300톤으로 2019년 대비 4.8% 감소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2020년 기준 연 142,047회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는 8천 665명이다. 가장 많이 이용한 공항으로는 보리스필(Boryspil) 59%, 리비브(Lviv) 10%, 즐랴니(Zhuliany), 오데사(Odessa), 하르키브(Kharkiv) 공항이 각각 8%이다.

○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침공으로 주요 도시의 공항들이 파괴되고 항공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 운송을 통한 수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3) 유의사항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품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출하기 전 바이어를 통해서나 물류기업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참고사항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으로 해상 운송, 항공 운송이 불가능하다. 곡물 수출 외에는 해상운송이 불가하다. 인접국가 항구를 통해서 물품이 들어와 육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수입되고 있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목록 통관: 물품이 100유로 미만일 경우, 개인적인 용도나 샘플로 사용될 경우 별 신고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가 2022년 1월 25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150유로 미만으로 초과 한도를 늘려 시행하고 있다. 가격에 관계없이 주류와 담배류는 목록 통관 예외 품목이다.

2) 일반 수입 통관: 일반 수입 절차는 수입 신고 전, 수입 신고, 물품 검사, 관세 납부 순서로 진행이 된다.

- 수입신고 전: 물품을 수출하기 전 품질 인증서 발급이 필요한지 여부와 수입 신고 전, 필요서류 검토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수입 신고: 수입신고는 대개 화물 수취인의 위임을 받은 운송회사가 수행하며 우크라이나 세관은 서류의 원본 제출의 의무화 하고 있다.

○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 수입신고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 명세서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운송장(Airway Bill)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수입 허가증(필요한 경우)

○ 관세 납부: 수입신고 및 물품 검사가 완료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관세는 CIF 기준으로 계산되며, 관세 등 그밖의 세금도 포함해 함께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의회는 계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수입품 관세, 부가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통관 서류 작성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 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우크라이나 세관은 원본 서류만 인정되며, Commercial Invoice는 수출자의 도장과 서명 필수이다. 공항 도착 시 세관과 국경세관에서도 세관 도장을 찍은 원본 서류만 인정된다. 화물 Specification에 따라 HS Code로 구분되며, HS Code에 따라 각종 통관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Post audit 이후 세관법에 따라 Commercial Invoice의 단가를 인정해야 하나 아직 단가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세관 기록에 같은 물건이 높은 단가로 통관된 기록이 있으면 단가 인하기 어렵다. 또한, 우크라이나 세관에서 수입상별로 class 분류해 class A(수입량이 많은 회사)는 대부분 Commercial Invoice 상의 단가를 인정하나, 그 외 업체는 단가 검사 부분에 세관에서 단가를 높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DHL Logistics

주소	Mykoly Hrinchenka St, 4B, Kiev, Kyiv city, 03680
전화번호	+380 44 200 3900
이메일	dhldirectsales@dhl.com
홈페이지	https://www.logistics.dhl/

○ Kuehne & Nagel

주소	Harmatna St, 4, Kyiv, 03067
전화번호	+380 44 490 3232
이메일	carrier.services@chrobinson.com
홈페이지	https://ua.kuehne-nagel.com/uk_ua/

○ Brokbridge LLC(현지 업체)

주소	Prospekt Obolonsky 35, 2nd floor, office 221
전화번호	+380 44 209 1007
이메일	alex@brokbridge.com
홈페이지	https://brokbridge.com/

○ Topcargo

주소	19a, Dniprovska Embankment, Kyiv, 02000
전화번호	+380 44 391 1179
이메일	dir@topcargo.com.ua
홈페이지	https://topcargo.ua/

○ Defy logistics

주소	BC
전화번호	+380 67 808 4528
이메일	info@defy-logistics.com.ua
홈페이지	http://defy-logistics.com.ua/

○ 에코비스 로지스틱

주소	1A Gogolevskaya str. Brovary, Kyiv Oblast, 07402
전화번호	+380 44 492 9144
이메일	hskim@ecovice.co.kr
홈페이지	http://www.ecovice.com.ua/en/

<자료원 : Logist Today 및 각 업체별 홈페이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유치에 관련된 기본법은 1996년 3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Regime")이다. 동 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의 지분이 설립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퇴거의 자유가 보장되고, 투자이익을 자유로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8월까지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통신 및 보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제한돼 있었으나(50% 이상 지분투자 금지), 2001년 8월에 해당 규제조항이 폐지됐다. 2006년 12월에는 외국 은행의 우크라이나 내 지점 설립을 허용하고 보험업의 개방 수위를 높이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거의 모든 부문에 투자가 가능하게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 절차상의 제한사항이 많고,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우대제도는 없다. 투자 후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1997년 10월에 폐지됐고,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다. FREE TRADE ZONE을 지정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해당 내용을 시행 보류 중이다.

제한 및 금지(업종)

우크라이나의 토지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소유할 수 없었는데, 이는 토지가 국가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2001년 토지법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소유를 허용했으나 2002년 1월 농경지의 매매/매입이 유예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최장 49년까지 임차해 사용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020년 4월 우크라이나 토지개혁법이 공포되며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개인 및 국내 법인 대상으로 토지 매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한 매매는 2021년 7월, 우크라이나계 법인에 대한 매매는 2024년 1월부로 허용될 전망이다.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는 현재 불가능하며 개정안에서도 외국인의 농경지 소유는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른 분야에서 역시 일부 외국인의 투자 제한 분야가 존재한다. TV 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 방송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 미만으로 제한되며, 외국인의 방송 투자를 위해서는 국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무기 등 방산 업체와 주류 생산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그 외에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는 없으나, 자원 및 원부자재 유통, 곡물 등과 같은 분야는 우크라이나 대형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없다. 과거에 우크라이나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자유경제구역(Free economic zone)과 개발우선지역(Territories of priority Development)를 운영하면서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지정된 면적이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10.5%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이 제도 중 세금감면 및 관세 감면 혜택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자유경제구역과 개발우선지역에 대한 법령이 폐기된 것이 아이어서 향후 해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11개의 자유경제 구역과 65개의 개발우선 지역이 설정되었으나 2020년 자유경제구역 인터폴트 코벨(볼린 주), 슬라부티치(키이우 주), 쿠로르토폴리스 트루스카베츠(르비우 주), 야보리프(리비우 주)가 자유 경제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o Free Economic Zones(자유경제구역: 11곳)

- 아조프(자포리지 주)
- 도네츠크(도네츠크 주)
- 자카르파티아(자카르파티아 주)
- 인터폴트 코벨(볼린 주): 제외
- 쿠로르토폴리스 트루스카베츠(르비우 주):제외
- 미콜라이브(미콜라이브 주)
- 포트 프랑코(오데사 주)
- 포트 크림(크림반도)
- 레니(오데사 주)
- 슬라부티치 (키이우 주):제외
- 야보리프(리비우 주):제외

o Territories of Priority Development with a special regime of investment activity(개발우선지역:9개 주)

- 크림 자치 공화국
- 볼린 주
- 도네츠크 주
- 자카르파티아 주
- 취토미르 주
- 루한스크 주
- 체르니히우 주
- 하리키우 시(하르키우 주)
- 쇼스타카 시(수미 주)

크림자치 공화국 및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아조프, 도네츠크, 루한스크)는 2022년 현재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사실상 자유경제구역과 개발우선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

o ECO-SMART INDUSTRIAL PARK & GALIT

규모	19ha
위치	82100, Lviv region, Drohobych city, square Market, building 1

임차료	임차료는 산업단지 관할기관과 별도 협상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YETI PRO LLC ○ 연락처: +380 67 447 78 83 ○ 이메일: management@galit.info ○ 홈페이지: https://galit.info/en/

○ Bila Tserkva Industrial Park

규모	70ha
위치	150 Levanevskogo Str., Bila Tserkva, Ukraine
임차료	임차료는 산업단지 관할기관과 별도 협상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Bila Tserkva Industrial Park ○ 연락처: +380-44-364-7889 ○ 이메일: info@ip-bt.com
비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남서 방향으로 90km 떨어진 빌라 트세르크바 시에 위치해 있는 산업단지로, 국가가 조성한 곳이 아닌 UFUTURE Investment Group이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 CTPark Lviv

규모	23ha
위치	Shevchenska Street, 79000 Lviv, Ukraine
임차료	임차료는 산업단지 관할기관과 별도 협상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CTPark Lviv ○ 연락처: + 420-606-609-999 ○ 이메일: hendrik.jung@ctp.eu
비고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브 시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폴란드 국경까지 60km 떨어져 있어 유럽으로의 물류가 용이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해당 산업단지는 체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CTP Invest에서 조성한 것으로 CTP Invest가 조성한 산업단지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도 위치해 있다.

○ Industrial Park "Solomonovo"

규모	66.2 헥타르
위치	str. Victory. 46, Solomonovo village Uzhhorod district,
임차료	임차료는 산업단지 관할기관과 별도 협상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Sezparkservis ○ 연락처: +380-312-61-2447 ○ 이메일: info@sezparkservice.com

비고	<p>이 산업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자카르파티야췌에 위치해 있어 동유럽 4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와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40km 떨어진 곳에 부다페스트, 비엔나, 프라하, 브라티슬라바, 트리에스테, 테살로니키를 연결해 주는 헝가리 고속도로 M5가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으로 자카르파티야췌에는 이미 Forschner, Yazaki, jabil, Gentherm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p> <p>최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고 중 유럽과 동유럽의 중심지로 성장하고자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p>
-----------	----------------------------------------------------------------------------------------------------------------------------------------------------------------------------------------------------------------------------------------------------------------------------------------------------------------

◦ Vinnitsa Industrial Park

규모	80 헥타르
위치	str., Nemyrivske shoes 213, Vinnitsa
임차료	임차료는 산업단지 관할기관과 별도 협상 필요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Department of Economy and Investments of Vinnytsia City Council ◦ 연락처: +380-432-5950 ◦ 이메일: dei@vmr.gov.ua
비고	Vinnitsa Industrial Park는 Vinnitsa시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업 및 관련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가구 생산, 기계 설비 및 수리, 물류 및 서비스 산업이 유치 대상이다.

<자료원 : www.ip-bt.com(Bila Tserkva Industrial Park), www.ctp.eu(CTPark), <https://vmci.vn.ua>(Vinnitsa Industrial Park), http://sezparkservice.com/sps_en(Industrial Park &solomonovo’)>

주요 지역별 여건

◦ 르비브(Lviv)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르비브는 우크라이나 내 문화 역사의 도시이자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 국경까지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유럽으로 통하는 물류 중심도시이기도 하다. 덕분에 르비브는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많은 편이다.

르비브 시 중심에는 옛 중세의 느낌을 간직한 올드타운이 있으며, 올드타운 전체가 UNESCO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유럽과 가깝고 EU 회원국에 비해 물가가 저렴해 매년 200만 명 가까운 국내외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르비브는 역사적으로 폴란드 및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스스로 유럽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한편, Andriy Sadovyi가 2006년 르비브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전략적으로 르비브를 IT 기술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력, 현재는 약 140개의 IT 업체와 18,000명 가까운 IT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IT 산업의 메카로 발전했다. '21년 현재도 르비브 시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르비브를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 오데사(Odessa)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오데사는 흑해를 통해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중요 항구 도시로 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해상 물류를 책임지는 오데사 항이 위치해 있으며, 해상으로 들어오는 상당수의 수화물이 오데사를 거쳐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로 여름철 피서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이 오데사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흑해 연안 해안선을 따라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해변이 준비해 있으며, 여름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리조트 시설들도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키이우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우크라이나 주택 약 15만 채가 피해를 보아 손실액은 약 54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프라는 약 138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러-우 사태가 장기적인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 준비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재건 사업을 통해 파괴된 노후 시설을 러-우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기반시설 전반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해외 기업들의 투자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advantageukraine\(https://advantageukraine.com/\)](https://advantageukraine.com/)을 통해 프로젝트 관련 신청을 받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중이다. 전쟁위험으로 인한 보증 보험 지원이 오늘날 외국인 투자자는 MIGA의 지원으로 전쟁 위험에 대한 투자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건은 군사 작전의 결과로 받은 잠재적 손실의 최대 90% 보상을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MIGA 사이에 3,000만 달러 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연도별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0억 1700만 달러, 2020년 -3600만 달러, 2021년 73억 2000만 달러, 2022년 8억 4800만 달러이다.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4732	6017	-36	7320	848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연도별 대외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억 4200만 달러, 2020년 2200만 달러, 2021년 -1억 9800만 달러, 2022년 3억 4400만 달러이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127	842	22	-198	344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對우크라이나 투자 동향은 금액은 연도별 편차가 심한 반면, 건수는 매년 12여건 내외, 신규 법인은 4여건 내외를 유지한다. 2022년은 러-우사태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신고금액, 투자금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신고건수는 3건, 신규법인수는 0개, 신고금액은 72만 달러, 송금횟수는 15건, 투자금액은 46만 9000 달러이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관련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11	3	1	34	1
2022	3	0	0	15	0
2023	1	0	0	5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우크라이나에는 삼성전자(도소매·유통), LG전자(도소매·유통), 오스텀 임플란트(판매), 포스코인터내셔널(도소매, 유통, 프로젝트 투자), 한국타이어(판매), 현대중합상사(도소매, 유통), 에코비스 로지스틱스(물류·운송) 등 주로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위주의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0	0	0	2	0
도매 및 소매업	4	1	0	21	0
운수 및 창고업	1	1	0	1	0

정보통신업	4	1	0	4	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2	0	1	6	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1	0	0	11	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0	0	4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0	0	0	3	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0	0	2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가전, AV, IT, 통신기기, 서비스, 연구개발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전자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지사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가전제품
모기업명	LG전자

○ 에코비스 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운송 통관 물류
모기업명	에코비스 로지스틱스

○ 포스코인터내셔널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현지법인 및 지사 (법인과 지사 모두 존재)
업종	도소매, 유통, 프로젝트 투자
취급분야	철강, 금속, 비철, 자원개발 등
모기업명	포스코인터내셔널

○ 현대종합상사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사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철차, 유지보수, 화학, 철강 등
모기업명	현대종합상사

○ 위더스 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10
------	------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운송, 물류
모기업명	위더스 로지스틱스

○ 한국타이어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취급분야	판매
모기업명	한국타이어

○ 오스템 임플란트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현지법인
업종	판매
취급분야	치과용 임플란트
모기업명	오스템 임플란트

<자료원 : KOTRA 키이우 무역관 >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외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즉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유한책임회사(LLC)와 유한회사(LTD)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어 약칭으로는 ТОВ(Товариство з обмеженою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ю)라고 표기한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이하 '법인'이라 칭함)는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는 자기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법률상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Share Capital)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법인의 주주는 1~100명까지 가능하며, 주주의 수가 1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법인 설립의 경우 절차가 복잡해 현지 법률회사를 통해 대행하는 것이 좋으며 설립까지 보통 7일 정도 소요된다.

지사

지사(Representative Office) 설립은 보통 시장조사, 정보 수집 등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사는 본국에 있는 해외기업의 본사가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법인격(Legal Entity)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는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지사 설립을 위해 별도의 자본금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사 설립 및 등록과 관련한 승인 권한은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처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사 신청 후 설립까지 10일~60일가량 소요된다.

한편, 지사임에도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보통 법인으로 등록 활동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지사(Representative Office)를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세운 것이라고 보면 된다. 관련 내용은 상기 '지사'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 우크라이나의 투자환경은 불안정하여 우크라이나 투자진출에 따르는 제도적 측면의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BA(European Business Association)에서 조사한 투자매력도에 따르면 2022년 말기준 우크라이나 상반기 투자매력도는 5점 만점에서 2.48점을 기록했다. 전쟁위험으로 인해 투자에 더욱 리스크가 있어 우크라이나는 전쟁위험 보증 보험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지원을 통해 투자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p> <p>2) 애로 사항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외국인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동부내전으로 인한 치안불안이 아닌 정부의 부정부패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해외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 실제로 2020년에 정부가 재생에너지분야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불이행하였다. 해외 투자금 25억 유로가 이 분야에 지원이 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승인된 녹색보조금(Green Tariffs)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하므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었다. 해외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투자를 중단하거나 소송 준비 & 소송 중에 있다. Arzinger로펌 회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투자분쟁 소송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는 건이 총 21건으로 2019년에 비해 11건이나 증가했다고 한다.</p> <p>우크라이나는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 투자위험에 대한 리스크 완화를 위한 무역보험이 지원이 되지 않아 투자하는 데에 리스크가 크다. 전문가들은 투자 전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 검토, 조사가 투자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p> <p>3) 분쟁해결 우크라이나는 BIT 등의 투자협정상의 의무 위반을 한 경우에 한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결정에 따라 투자자는 체결국에 결정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에 따라 체결국은 중재판정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 중재 판정 강제 집행을 위한 청원서를 우크라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청원서 제출의 공소시효는 투자 중재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는 자금 출자 의무를 지는 주주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한다. 성격상 유한책임회사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주식회사는 월 최저임금의 1,250배에 달하는 수권자본금(약 15만 달러)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국가보안주식시장위원회(НКЦПФР)에 등록 및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는 형태에 따라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 2가지로 구분된다. 개방형 주식회사(Public Joint Stock company)는 주식 거래소를 통해 일반인들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다. 반면, 폐쇄형 주식회사(Private Joint Stock Company)의 주식은 주식 거래소를 통한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상기 '법인'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한책임회사(LLC)는 주식회사와 달리 수권자본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며, 자본금 범위 내에서 주주가 자기 투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주의 수는 1~100명까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우크라이나에서 영리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약칭 ФОП(Фзична особа-пдпримець)라고 표기한다.

우크라이나는 외국인도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국적에 따른 개인사업자 등록에 제약이 없다. 다만, 외국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식 입국 사실 증명, 세금 납부를 위한 개인등록번호(ID Number)를 발급, 우크라이나에 정식 거주

중이라는 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스스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려우므로 보통 현지 법률 회사를 통해 대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현지 법률 회사를 통한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까지 보통 5~7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할 경우 연 소득 수준에 따라 간이세율(Simplified tax systme)을 적용받아 법인과 같은 일반 회사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간이세율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소득 수준별 간이세율은 우크라이나 현지 법무법인 DLF의 공식 홈페이지(<http://dlf.ua>)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Justicon

전화번호	+38-044-221-4000
주소	Starovokzalnaya Str., 18, 2nds floor,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justicon.ua
이메일	info@justicon.u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우크라이나 키이우 소재 법무법인

◦ DLF Attorneys-at-Law

전화번호	+38-044-384-2454
주소	IQ Busiiness Centre, 13-15 Bolsunovska Str., 8th floor,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dlf.ua
이메일	info@dlf.u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우크라이나 키이우 소재 법무법인

◦ Ernst & Yong Ukraine

전화번호	+38-044-490-3000
주소	Khreshatyk Plaza, Khreshatyk str., 19a,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s://www.ey.com/ua/uk/home
이메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문의가능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KOTRA 키이우 무역관 인근 소재 국제적 회계법인

○ PwC Ukraine

전화번호	+38-044-354-0404
주소	Zhlyianska St, 75,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s://www.pwc.com/ua/en/
이메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문의가능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우크라이나 키이우 소재 국제적 회계법인

○ Vasil Ksil & Partners

전화번호	+38-044-581-7777
주소	Business Centre Leonardo, 6th floor, 17/52A Bohdan Khmelnytsky Street,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www.vkp.ua/
이메일	vkp@vkp.u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우크라이나 키이우 소재 현지 법무법인

<자료원 : 각 회사별 홈페이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중앙은행인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이 공식환율 발표, 외환송금 통제, 외환매도 입찰 및 매수 등을 통해 외환관리를 하고 있다. 2000년 2월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해 계속 시행되고 있다가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이후 고정 환율제로 변경하였다. 2, 3월 환전 시장 환율은 중앙은행 고정환율 29.25호리브냐와 큰 차이없이 유지되었으나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격차가 나기 시작했다. 고정 환율과 비교해 약 2호리브냐의 격차가 나기 시작하다가 5월 하순에는 중앙은행 환율 대비 약 6호리브냐 이상 격차가 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장 Kyrylo Shevchenko는 고정환율 시스템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장치임에 틀림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5개월 넘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세계 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29.25호리브냐 공식 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7월 21일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 대비 가치를 25% 절하하기로 결정하고 달러당 환율을 29.25호리브냐에서 36.57호리브냐로 조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외환 당국의 외환 관리가 매우 엄격한 나라이다.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외환 당국은 외환 통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근래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서 외환 통제를 점차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IMF 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전쟁발발로 외환 거래 자유화가 단시일 내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환 규제

1) 외국환 구매 제한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외국환 시장에서의 외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거주자(resident)가 비거주자(non-resident)와 채무 관계에 있어 외국환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우크라이나 거주자(resident)에게 외국환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외로 개인이 하루 최대 150,000호리브냐(UAH)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외화만 구매 가능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개인 용무로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 무역거래에 필요한 모든 외국환 거래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

2월 24일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이후 중앙은행은 외화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점령위험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외화 구매가 가능하다.

2) 외화 반출입 엄격 통제 및 세관신고 의무화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이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금액이 사전에 우크라이나에 반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우크라이나로 외화 입금 시 현금 인출 제한

우크라이나 내에서 개설된 외환거래 계좌(FX accounts)에서 인출할 수 있는 1일 한도액이 당초 UAH 3만에 해당하는 외환금액에서 UAH 10만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인출하는 것뿐 아니라, 해외에서 인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인출할 때는 1일 한도액이 10만 호리브냐에 해당하는 외환으로 기준을 유지한다.

4) 해외송금 제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 카드로 월 100,000호리브냐(약 3,400달러)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단, 교육비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돈을 송금할 경우는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방탄 조끼, 헬멧, 침낭, 매트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400,000 호리브냐(약 13만 5,000달러) 상당의 외화 송금이 가능하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36.5686흐리브나(2023년 5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98.62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98.62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1
비고	<p>2023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우크라이나의 월 최저임금은 2023년 6,700 흐리브나(UAH)로 미 달러로 환산할 시 약 183달러 수준이다. 2023년에 평균적으로 신체 건강한 사람의 실제 최소 생계 규모는 UAH 8,962(245.07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최소임금은 2022년 수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p> <p>2022년 1월 기준, 우크라이나 전체 월평균 급여 수준은 14,577 흐리브나(UAH)이며 2023년 변경사항은 없다. 달러로 환산하면 2022년 약 536.86 달러로 나타났는데 러-우사태로 달러환율이 상승했다. 중앙은행은 경제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 흐리브나가 초 약세를 보이자 환율 통제에 나섰다 2022년 7월 21일 고정환율을 1달러당 36.5686로 책정했다. 달러로 환산하면 월평균 급여 수준은 398.62달러이다. 달러로 보면 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오히려 작년대비 월급 월급이 32.07%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p> <p>우크라이나 임금 수준은 지역별로 그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수도인 키이우가 가장 높은 임금 수준 (21,347 UAH)을 유지 하고 있으며, 그 뒤로 도네츠크주(15,480 UAH), 키이우주(15,152 UAH), 자쁘리쾨주(14,510), 드네프로페트롭스크주(14,479 UAH), 미콜라예프스크주(14,382 UAH),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p>				

〈자료원 : 우크라이나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우크라이나에서 현지인을 고용하려면 우선 광고, 소개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물색해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노동기록부(Labor Book)를 받아 노동법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노동기록부에는 피고용인이 수행하는 업무, 보수, 고용 기간 등이 기재되며, 일생 기록을 유지해야만 은퇴 후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률적 장치가 우리보다 잘 마련되어 있어 현지인을 고용하기 전에 노동법규 일반사항을 상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최근에는 경제 사정이 악화하면서 국내 고용 시장이 오히려 유연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직 희망자는 많은 데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고용 기간 제한이 없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직 형태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법적 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그 외에 우크라이나는 육아휴직, 출산 휴가, 병가 등이 잘 정립되어 있어 근로자가 필요로 할 경우 해당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가

우크라이나 노동법에 따라 연차 휴가로 24일(달력일)을 쓸 수 있다. 또한 매년 적어도 1회 14달력일(주말 포함)의 연속된 연차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고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혹은 결석, 성희롱, 방화, 살인과 같은 징벌적 성격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근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해고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법적으로 고용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만약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상호 합의에 따라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퇴사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사안에 따라 퇴직금 상이)

퇴직금

우크라이나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1~3개월 치 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공립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피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건강 보험료 지불 의무는 없으나, 국공립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아 근로 환경이 좋은 기업에서는 별도의 건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고용보험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주세(혹은 사회보장세, 월 실 급여의 22%) 내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유급병가(임신 포함)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피고용주가 해고나 퇴사를 했을 경우 고용 서비스국(Державна служба зайнятост)에 실업보험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실업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등적으로 산정되며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무 기간에 따른 실업보험 월 지급액 기준
 - 6개월 미만: 544흐리브냐(UAH)
 - 6개월~2년 미만: 직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평균 급여의 50%
 - 2년~6년 미만: 직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평균 급여의 55%
 - 6년~10년 미만: 직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평균 급여의 60%
 - 10년 이상: 직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평균 급여의 70%

산재보험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주세(혹은 사회보장세, 월 실 급여의 22%) 내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유급병가(임신 포함)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주가 사회보험기금(Фонд соціального страхування України)에 근로 직원의 산재를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의 근로 환경, 근로 위험성 정도,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산재보험 액수가 정해지며 최종 지급 여부는 우크라이나 내각에서 결정한다.

국민연금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주세(혹은 사회보장세, 월 실급여의 22%) 내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유급병가(임신 포함) 기금이 포

함되어 있다. 2023년 변경된 우크라이나 연금법에 따르면 만 60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60세에 연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을 일해야 한다.

만약 60세가 되었음에도 연금 수령을 위한 근무연수 3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63세(20년 이상인 경우)까지 추가 연장 근무한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연금으로 매월 최소 2,304흐리브냐(UAH)를 지급하고 있다. 60세에 근무연수가 15~20년인 경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우크라이나에 등록되어 우크라이나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조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취급되며, 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및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 소득세 18%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만약 기업이 외국에 등록되어 외국법의 관할 하에 있는 경우 조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 취급되나, 배당금 소득, 이자 소득, 로열티 등과 같이 우크라이나의 내부 자원을 활용해 기업이 이윤을 취했을 경우 법인 소득세로 15%가 부과된다. 참고로 비거주자(Non-resident)가 화물 운송을 통해 소득을 얻었을 경우 법인 소득세 6%가 부과된다. 또한 비즈니스 영역에 따라 법인세는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업의 경우 분야에 따라 0%, 3%, 4%, 12%의 법인세가 적용되며 광고업의 경우 20%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세금 납부일 및 신고서 제출일은 분기별 납세자와 연간 납세자로 구별된다. 분기별 납세자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 단 4분기의 경우 4분기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납세자는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조세법상 거주자(Resident) 및 비거주자(Non-resident)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세율은 18%이다. 단,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5%로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 아래와 같은 경우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20%가 적용된다. 일부 의약품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이 7%로 규정되기도 한다.

- ① 우크라이나 내에서 행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 ②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입

관광, 문화 관련 부가가치세율이 14% 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0%이다.

또한 납세자는 연간 1백만 흐리브나(UAH)을 초과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를 진다.

신고서 제출일은 익월 20일까지이며, 세금 납부일은 익월 30일까지이다.

계영령 기간에는 잠시 동안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다시 부가가치세 징수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의 경우 주류, 담배류, 연료,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 등 특정 품목에 한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제품의 생산 및 수입 유통 시 부과되고 있다. 품목별 세율은 상이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특별소비세를 매년 인상하는 추세이다.

5월 1일부터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 품목 제조/수입 기업에게 5% 소비세가 적용된다.

2022년 3월 18일부터 연료 소비세를 면제했으나 9월말부터 연료 소비세를 다시 징수하기 시작했다. 현재 연료관련 특별 소비세가 인상되어 가솔린 경우 1,000리터당 100유로에서 213.5유로로 인상되었으며, 디젤의 경우 1,000리터당 100유로에서 139.5유로로 인상됐다. 액화가스, 부탄, 이소부탄은 변함없이 1,000리터당 52유로다.

평률세(Flat tax)

우크라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세금 시스템이다.

직원 수, 연간 매출 규모 및 활동 유형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1)첫번째 그룹: 개인 사업자

- 직원: 없음
- 소득액: 최대 UAH 1,118,900
- 활동: 소매 무역 및 서비스
- 세율: 우크라이나 최저 생계비의 최대 10%

2)두번째 그룹: 개인 사업자

- 매출액: 최대 UAH 5,587,800
- 직원: 0~ 10명
- 세율: 우크라이나 최저 임금의 최대 20%
- 활동: 소매 무역, 서비스 및 레스토랑

3)세번째 그룹: 개인 사업자 및 법인

- 직원 수: 제한 없음
- 매출액: 최대 UAH 7,818,900흐리브나
- 활동: 모든 분야
- 세율: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의 3%(부가세 지불하는 경우)나 소득의 5%(부가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 법인의 경우, 소득의 6%(부가세 지불하는 경우)나 소득의 10%(부가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4)네번째 그룹: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직원 수: 제한 없음
- 매출액: 제한 없음
- 활동: 농업
- 세율: 0.19 ~ 6.33%

*계엄령 기간 동안, 세번째 그룹에 한해 소득의 3%,5%(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의 6%, 10%(법인의 경우) 대신 매출액의 2% 세율을 납부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 7월부터 계엄령 전과 같이 예전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세

국방세는 2014년 러시아의 무력 침략이 시작되면서 도입하게 되었다. 소득의 1.5%가 적용된다.

부동산세

거주용 아파트 면적 60㎡ 초과, 거주용 단독주택 120㎡ 초과, 다양한 용도의 면적 180㎡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과세 대상이다.

각 지역마다 세율이 다르나1㎡당 1.5%를 초과할 수 없다.

산림자원 사용세

목재의 크기, 용도, 나무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특별 허가(벌목권 또는 산림권)를 기반으로 하거나 장기 임시 산림 사용 계약 조건에 따라 목재 및 비목재 산림 자원을 수확하는 산림 사용자가 지불하게 된다.

수자원 사용세

물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한다. 물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강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무선주파수 자원 사용세

용도와 대역 주파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운송세

1년에 2,5000흐리브나를 징수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제조 연도가 5년을 넘지 않고, 자동차 가격이 최저임금의 375배 이상 되는 자동차에 한해서 적용된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웹사이트(<http://www.me.gov.ua/Vehicles/CalculatePrice?lang=uk-UA>.)에 운송세가 적용되는 차량 목록(브랜드, 모델, 생산 연도 포함)을 매년 업데이트 하고 있다.

환경세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2021년보다 세율이 올랐고, 계속 환경세는 상승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21년 대비 2022년 대기 배출 5% 상승 했고 이산화탄소배출은 3배 상승했다.

납부는 분기 별로 해야 하며, 분기 말 40일이내에 신고서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납부 해야한다.

토지세

토지세는 가치 평가가 수행된 토지에 한하여 토지 가치 평가의 3% 이하로 적용된다. 공용 토지의 경우 가치 평가의 1% 이하, 농지인 경우 가치평가의 0.3% 이상 1% 이하, 삼림지인 경우 가치 평가의 0.1% 이하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세율은 경제 주체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규범적 금전적 가치의 12% 이하로 설정된다.(주 및 공동 소유 형태 제외)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과 이미 점령된 지역에 한해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지역 정보는 우크라이나 내각에서 수시로 공지할 예정이다.

광물 추출을 위한 심토 사용세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1%~70% 적용된다.

광물 추출과 관계없는 심토 사용세

세율은 지하 토양의 특성에 따라, 안전성 정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천연가스, 오일, 가스 및 제품의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와인 제품의 생산과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버섯/야채/꽃 및 기타 식물 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식품이나 그 외 산업 물질 및 재료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외 다른 유형으로 경제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다.

디지털세

2021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디지털세(구글세)가 도입되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장소가 우크라이나에 소재하고 있고, 제공된 서비스 비용의 총액이 UAH 1,000,000(한화 약 4,414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세무상 비거주자는 과세표준의 20%(USD 또는 EUR)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이러한 서비스 용역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우크라이나 지식재산권 보호는 헌법, 민법, 상법, 관세법, 기타 특별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utility model), 디자인(industrial design),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된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동일한 법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실용신안(utility model)에 대해 보호되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출원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디자인은 제품 또는 그 일부의 외관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것이면 등록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간 보호되었던 데에서 25년 이하로 기간을 증가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디자인 남용시 1회성 과태료(최저 1만~최대 5만 흐리브나)를 부과해야 한다.

상표권은 법에 정한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등록가능하다. 등록된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표권 부정사용시 1회성 과태료(최저 1만~최대 5만 흐리브나)를 부과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생성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법으로 정한 특별한 표시를 사용하여 권리를 고지 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권리(저작재산권)는 저자의 사후 70년 동안 지속되며, 저작인격권은 기간 제한 없이 보호된다. 공연자의 권리는 공연이 처음 녹음된 날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음반 제조업자 및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나 영상이 최초 공개된 때로부터 50년, 또는 해당 기간 내에 음반이나 영상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출판 또는 녹음 시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첫 방송 시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우크라이나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협정은 특허권 관련 파리 협약 및 PCT, 식물 신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조약 등이 있다.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청산 절차

우크라이나에서의 청산 절차는 최소 2주에서 3달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청산 비용은 수십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다양하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일반적인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업 대표 혹은 법정 판결에 따른 청산 결정
- 사업청산계획서 작성 및 청산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
- 기업 청산 공지
- 사업자금 회수 및 채무 지불
- 모든 기업 자산평가
- 청산 결정 날짜의 기업 재정 상태에 대한 서류(대표 혹은 동업자 서명 필요) 준비
- 재무부에 기업 청산 진행 신청
- 기업등록청에 공증받은 청산 신청서류 사본 제출
- 연금 기금 및 사회보장 기금에 기업 청산서류 제출
- 고용인들과의 고용계약 종료
- 국세청의 세금 조사
- 기업 명의의 은행 계좌 말소

청산 절차 진행 중 기업 채무가 존재할 경우 기업 기물 매매와 같은 방법을 통해 모든 채무를 완납해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 이후 기업등록소에서 채무사항이 없다는 서류를 발급한다.

2) 청산 관련 법

- Commercial Code of Ukrain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https://zakon2.rada.gov.ua/laws/annot/en/436-15>

정부는 전시 기간 중 청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상황으로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출 수 없는 경우, 채무가 없는 경우에 간소한 절차를 통해 청산할 수 있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세계 경제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도 채 되지 않지만,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결코 쉽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국가이다. 미국, 러시아, EU의 첨예한 이해가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면적, 자원 등 모든 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우크라이나는 천연자원과 곡물, 제조산업 기반이 비교적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동시에 내수시장도 어느 정도 받쳐 주는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이다. 중부·동유럽 국가 가운데, 단일 시장으로 인구가 5천만에 육박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유일하다. 정부·기업·국민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따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등 7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 시장까지 합치면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는 잠재 시장이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농업 국가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미의 프레리(Prairie), 아르헨티나 팜파스(Pampas)와 함께 세계 3대 곡창 지대 중 하나이며, 전 세계 흑토의 약 1/3이 우크라이나에 분포해 있음. 천애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고, 세계적인 농업 수출국으로 농산물 수출규모만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이다.

우크라이나는 우주발사체 설계·제작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인데, 우주산업 관련 주요 기술 중 17개의 기술특허를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다. 특히, Yuzmash社는 로켓 및 인공위성 발사체 설계·제작사로 4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개발한 바 있고, 미국·유럽 국가들과 협업 중이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침공이 1년이 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 침공 이후 많은 인구들이 해외로 피난가게 되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2023년 4월 18일 기준 우크라이나 총 피난민 수는 817만 4,189명(러시아, 벨라루스로 간 피난민 수 포함), 그중 유럽 국가 지원을 받고자 임시 등록한 피난민 수는 504만 4,039명이라고 한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흑해 수출길이 봉쇄되어 대부분 해상을 통해서 수출되었던 곡물 수출이 막혀 우크라이나 농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7월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터키가 우크라이나 곡물의 흑해 수출을 재개하는 협정에 서명하여 곡물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오데사 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항구 3곳만 개방이 되었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우크라이나는 유럽 내에서도 인구 4,300만 명이라는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크림반도 사태, 동부지역 내전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의 실제 구매력 수준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직 유럽 내 중요 시장으로서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러시아 침공 이후 많은 인구들이 해외로 피난가게 되면서 소비 인구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젊은 여성들, 어린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Leverhulme Centre for Demographic Science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키이우시 20~40대 여성 인구는 약 445,000명, 2022년 5월 10일 기준으로 약 154,000명으로 약 65%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가구당 월 소비 지출액은 지역간 편차가 큰 편인데 2021년 기준 1가구당 월 소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 키이우로 2021년 기준 12860.55 흐리브나로 달러 환산 시 약 494.63달러다. 지출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Zhytomyr시로 7886.38 흐리브나, 달러로 303.32달러다.

소비가 가장 많은 연령대 인구가 소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지역 키이우에서 65% 감소한 것을 볼 때, 5월 이후 피난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소비 인구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원 : 우크라이나 통계청>

소비 성향

우크라이나인은 소비성향이 높고, 자존심이 강하며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성향도 강하다. 이런 성향으로 중고 외제 자동차나 중고 명품 브랜드 의류가 인기가 있다. 키이우에서 고급 자동차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세련된 옷차림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새 자동차나 새 명품 브랜드 의류를 구입하기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의류, 패션 용품 모조품도 상점이나 인터넷 매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서구적 생활양식에 익숙해 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유럽인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상당 부분 유럽인들과 같은 생활 양식을 보이고 있다. 지리적으로 동유럽에 속하면서 서유럽과 가깝다는 특성 때문에 여름휴가, 겨울 휴가 시즌에는 주로 유럽 및 중동(이집트, 터키) 국가를 자주 찾는다.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시 가격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편이므로 대체로 가격을 중시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제품이라도 매장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여러 매장을 방문해 가격을 비교하며, 또한 유사한 제품의 가격과 비교해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야 구매를 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사태 이후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저품질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낮으므로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은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수입상들 사이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물론 고품질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도 분명 존재한다. 특히 EU와의 FTA 체결로 유럽 시장이 더욱 가까워지면서 유럽산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특히 부유층 사이에서는 서구의 최고급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동차, 가전, 패션, 주택 등에서 최고급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침공 이후 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구의 40%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물가도 전쟁 전 대비 평균 25% 상승하는 등 경제 불안으로 우크라이나인 소비 성향도 변화하고 있다. Gradus 리서치 연구소에 따르면, 소비 성향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42%가 쇼핑하는데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 19때보다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전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쟁 후 값싼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고 소비를 적게 하고자 애쓰는 소비자들도 증가했다. 또 구매를 결정할 때 64%가 중저가 구매하겠다고 했으며 16%가 프리미엄 제품 구매, 20%가 답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자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제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우크라이나 제조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있다. 응답자의 60%가 러시아 제품 구매를 거부한다고 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품목별로 크게 상이하긴 하나 화장품,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 특히 핸드폰 삼성과 가전제품 삼성, LG제품이 잘 알려져 있다. 자동차는 현대, 기아차가 잘 알려져 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새차 뿐 아니라 한국 중고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 중고 자동차는 LPG 연료 차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연료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같은 한국 자동차라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가 수출용 한국 자동차 보다 기능이 뛰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도 높다. 한국 화장품 전문 수입/유통 기업의 온 오프라인 매장, (H&BHealth and Beauty) 스토어, 화장품 전문 온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화장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러-우 사태로 2022년 한국 화장품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2023년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 되면서 다시 한국 화장품을 찾는 바이어들이 늘고 있다. KPOP의 영향과 화장품의 인기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라면, 고추장, 김 등이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 의료기기도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바이어들이나 유통기업들 사이에서는 유럽 제품과 비교하여 절대 뒤지지 않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제품이 전쟁 후 물류가 원활하지 못해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제품을 접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재고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가격도 올랐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안정적인 거래 조건 견지

우크라이나는 현재 IMF 구제금융 체제에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이 악성 채무로 외환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기업이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돈을 지급하려고 해도 은행의 문제로 지급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오랜 기간 거래해온 바이어라 하더라도 외상거래는 피하고, 소액이라도 최대한 선금을 받고 제품을 선적하는 식의 거래 조건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모든 거래에서 바이어와 거래은행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다.

2) 원부자재 공급선 기업 발굴시 주의

원부자재 공급선 기업들과 거래하고자 할때 사기를 치는 사기 기업들이 종종 있다. 한국 기업들이 목재, 농산물 등의 수입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일부러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한국 기업의 관심을 끌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거래 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하여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조작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글 지도에서 기업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회사 정보를 제공해 주는 Youcontrol(<https://youcontrol.com.ua/en>)을 통해서 실제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하고자 하는 금액이 크면 가능하면 LC로 거래하거나, 거래 전에 반드시 공장을 답사하여 제품과 회사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복잡한 법 규정 관련 위험 방지

우크라이나는 각종 법규정의 개정 및 폐지가 매우 잦고 복잡하며, 우크라이나어라는 특수어로 되어있어 일부 업체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외국 기업에 돈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경우가 있다.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들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업체에 관련 법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나 공문서 작성 시에는 현지의 유력 로펌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현지 법원에서 외국인이 승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계약서상의 문제는 적용법이나 분쟁 해결 재판소를 제3국이나 국제법으로 해두는 게 필수적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인허가 관련 법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관련 전문가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허가와 관련된 협상에서는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바이어가 거래 초기에 제품 수입에 따른 인허가 비용을 우리 기업이 부담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게 할 경우 인허가 비용을 수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허가 비용은 우크라이나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향후 추가거래 시 제품 가격에서 이를 차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4)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대처

수입 관세 및 부가세(20%)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언더밸류, 제3국의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우회통관, 제3국의 계좌를 통한 자금 거래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최근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무역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바이어가 이러한 거래를 요청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크라이나는 고위층에서의 지시나 국가 법규정 변경이 실무선까지 제대로 하달되거나 발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 진출을 위해 고위 인사와의 인맥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신규 거래 요령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아직 한국 기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거리도 멀어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며, 초도 물량을 소액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양자 간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물량이 적다고 연락을 끊기보다는 소액의 거래를 통해서라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복잡한 결재선 등으로 인해 이메일, 팩스 등에서 회신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를 해당 제품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꾸준히 접촉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거래 의사가 없이 시간만 끄는 경우로 의심된다면 공문서를 통해 거래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서로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보다는 직접 만나 상담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제품도 소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샘플을 직접 보고만 쳐보는 것에 익숙해 있는 편이므로 어느 정도 바이어의 관심이 구체적일 경우에는 직접 샘플을 보여주고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회사의 실제 규모나 전문성 등이 외양의 이미지와 크게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사전에 사무실이나 공장을 직접 방문해보는 게 중요하다.

5) 방문 시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로는 여름휴가 기간(7월~8월), 연말연시로 대부분의 업체가 이 시기에 장기 휴무에 들어간다. 특히 신년휴일과 성탄절이 있는 1월 초는 대개 정부의 발표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 관공서들이 약 2주간 휴무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있을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당 공휴일 몇 주 전에 공휴일 날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휴일 인근의 날짜로 출장 일정을 잡을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6) 멋진 건배사로 분위기 주도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우크라이나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술을 하는 자리가 있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관례상 통상 이런 경우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하는데, 한 우리나라 참석자의 멋진 건배사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진 적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어로 건배는 '부딤모'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얼핏 들으면 '불지 뭐'가 된다는 것이다. 그 말대로 양국의 참석자들이 계속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서로의 공통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좌중에 웃음이 퍼진 것이다. 건배 표현으로 '부딤모'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우크라이나에 보다 각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술을 매우 좋아해 관련된 습성이 많은데 모임의 첫 술잔은 한 번에 비워야 하며, 감기몸살에 걸리면 보드카에 소금을 가득 부어 한 잔 마시는 경우도 있다. 거리에 무수히 쌓이는 술병(특히 맥주병) 문제로 인해 최근 정부가 공원, 거리에서의 음주를 금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이 이를 무시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기업인들이 술을 대접한다는 것은 거래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다. 상담회를 위해 방한한 우크라이나 기업의 경우 가방에 보드카를 싸두고 있다가 상담 진행 과정을 보고 향후 거래하고 싶다고 판단되는 기업일 경우 보드카를 꺼내 선물하곤 한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우크라이나는 법률이 지극히 노동자 위주로 되어있어 감기 등 가벼운 건강상의 이유로도 사전에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미팅

당일 오전에 건강의 이유로 미팅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예측하기가 힘든 복잡하고 긴 결재 소요시간과 관공서의 업무처리 소요시간, 담당자 부재 시 대체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성향, 키우 시내의 극심한 교통난 등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언급된다. 시간관념도 느슨한 편이어서 예컨대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대부분 무조건 10분 뒤, 20분 뒤에 택시가 도착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오랜 사회주의 경험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인들은 오래 기다리는 것에 대해 익숙한 편이며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늦었다고 같이 늦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후 5시면 사실상 업무가 종료되는 관공서, 회사가 많으므로 가급적 모든 방문이나 상담 시간은 오전 10~12시에 잡는 게 좋으며, 관공서의 경우는 휴무일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오후 2시면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확실하게 방문 시간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회사 방문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문으로 방문목적과 방문자 내역 등을 송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공문에 대한 최고 책임자 결재 및 지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방문 건은 최소 수주일 전에 시간을 정해두는 게 좋다.

2) 선물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선물 제공이 일반화되어 있다. 연말에는 업무와 관련된 기관, 회사에 와인이나 초콜릿을 선물하는 게 일반적이며, 특히 여성의 날에는 사적으로 친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내 직원이나 관련 협력 업체 여자들에게 꽃, 화장품,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꽃을 선물할 때 짝수 송이는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홀수 송이로 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경우 최근 뇌물이나 지나친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어 유의해야 하며, 선물을 줄 때에는 서로 부담이 없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차를 매우 좋아하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으므로 우리나라 인삼차나 녹차도 좋고, 이밖에 한국 전통 민속품이나 한국 화장품, 회사 로고가 있는 기념품 등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들이 활용하는 주요 선물이다. 우크라이나인이 술을 좋아하므로 와인, 보드카, 샴페인, 고약 등도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3) 인사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우크라이나어로 '도브리덴(안녕하세요)'이라는 인사말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인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즈드라스트부이쨌(안녕하세요)'라는 러시아어 인사말도 사용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인사 시 악수를 많이 주고받으며, 존경하는 사람이나 상급자에게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한다. 이름을 부를 때는 Mr.나 Ms.로 부르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예의에 맞는 호칭법이다. 명함 상에 Doctor(Dr.)가 표기돼 있으면 Doctor에 성을 붙여 호칭해도 좋다. 우크라이나에서 Doctor라는 호칭은 상당한 경의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헤어질 때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도뵤바첸냐'라고 표현하며, 러시아어로는 '다스비다니아'라고 한다.

4) 복장

실용적인 성향이 있어 복장은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비즈니스 상담이라고 해도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성의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식이 일반적인 옷차림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국인은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상담 시에는 되도록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정장을 입는 게 좋다. 특히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이 유색인종에 대한 멸시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옷차림이 허술한 아시아계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는 게 중요하다.

5) 러-우크라이나 관계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한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비슷한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크라이나인들은 스스로를 유럽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세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에 의한 침탈을 겪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이다. 또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동부 지역 사태로 러시아에게 영토를 빼앗겼다는 인식이 강하고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더 반감이 커진 상황이라서 러시아에 대해 조금이

라도 우호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부분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어만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6) 문화적 유의사항

○ 슬라브 민족의 원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브레진스키 교수(미국 존스홉킨스대)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형이라고 칭한 적이 있는데 이는 러시아 역사의 기원이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위치했던 '키이우 공국'이기 때문이다. 슬라브 민족의 첫 국가인 키이우 공국(혹은 키이우루시)은 880년경, 현재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지역에 세워졌다.

키이우 공국은 10세기와 11세기에 크게 강성하다가 몽고의 침입 이후 쇠퇴하게 되어 슬라브 세력의 중심이 모스크바 공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슬라브 민족의 원류 종교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키이우에 위치한 정교회 수도원인 '페체르스카 라브라(동굴수도원)'는 세계 최고(最古, 1051년 건립)의 정교회 수도원으로 유명하다. 지하 동굴 기도실에 옛 수도사들의 시신이 미이라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많은 신도가 이것에 신성을 부여한다.

○ 소련 시기에 축적된 높은 과학기술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의 과학기술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소련시기에 각종 산업시설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중공업, 첨단산업 등이 크게 발달했는데, 독립 이후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인공위성과 항공기를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한때 항공모함까지 직접 건조한 저력을 갖고 있다. 세계 최대 중량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 AN225를 우크라이나의 Antono사가 제조한 바 있다. 또한, 이밖에 풍부한 철강 자원을 바탕으로 용접 등 각종 금속 처리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Paton 센터는 이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소이다.

○ 동부와 서부의 차이

우크라이나는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의 문화와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소련 시기의 산업시설이 밀집된 동쪽 지역의 사람들은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고 유럽과 인접해있는 서쪽 지역의 사람들은 친서방, 친유럽의 성향을 주로 보인다. 또한 우크라이나 서쪽 지방의 경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고집하는 성향이 있고, 동쪽 지방의 경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 현재 우크라이나어는 국가 공식어로 지정되어 있어 모든 법률과 공문서가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되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어를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전체 인구의 약 17% 정도가 러시아인이므로 반러시아적이거나 지나치게 우크라이나의 민족성을 강조하는 등의 대화는 피하는 게 좋다. 사람의 성이 '치', '프' 자 등으로 끝나는 사람은 러시아인일 가능성이 높고, '코', '축' 자 등으로 끝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해 얕잡아 보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 일견 후진국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산업화된 국가(우주산업, 항공산업, 조선산업, 기타 기초과학 발달)로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럽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존심도 무척 강하다. 실제 생활양식, 문화 등은 유럽과 흡사하다. 다만 구소련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법률, 제도 등이 정비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낮은 상황이다.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당시 소련 연방의 하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에 의한 방사능 누출 사고를 말한다. 이 사고로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 낙진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러시아 등에 집중적으로 떨어져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했으며, 이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하였고, 수십만의 인구가 해당 지역으로부터 강제 이주당해야 했으며, 기형아 출산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아직도 사고 시설이 완벽히 봉쇄되지 않은 상태이고, 강물 바닥이나 깊은 숲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시 낙진이 바람을 타고 거의 대부분의 유럽국가에까지 퍼졌다는 점으로 인해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큰 심리적인 상처다. 절대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 농담조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 탄탄한 농업 기반에서 오는 낙천성

우크라이나는 기후가 여타 CIS 국가들보다는 온화한 편이고, 거대한 국토(한반도의 약 3배) 중 대부분이 비옥한 흑토여서 농업 기반이 좋아 국민이 낙천적이다. 특히 농업의 경우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거대한 농업 잠재력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은 행여 나라가 망하더라도 가족들의 텃밭에서 경작되는 농작물만으로도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F(The same store)

사이트 주소	https://f.ua/
개요	F(the same store)는 우크라이나에서 주요전자상거래 플랫폼중 6.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105만 명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가전제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Rozetka

사이트 주소	https://rozetka.com.ua/
개요	핸드폰 판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Rozetka는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Rozetka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매일 250만 명 고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약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Rozetka는 2005년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규모는 20억 달러, 고용인원은 4,000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가전제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징	Rozetka 업체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플래그십 스토어, 소매점, 셀프서비스 터미널, 미니버스 픽업 서비스를 통해 제품 확인&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니버스 픽업 서비스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에 Rozetka미니버스를 배치하여 소비자들이 빠르고 쉽게 온라인 주문 제품을 확인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이다.

○ Prom

사이트 주소	https://prom.ua/ua/
개요	매일 4,800만 고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한달에 약 300만 제품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6만 260 명이 넘는 판매자들이 Prom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고, 매출 규모는 약 7억 68만 달러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Prom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매출 규모는 약 7억 68만 달러, 고용인원은 약 600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가전제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징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Prom페이 결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Prom페이 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Prom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제품 수령을 결정하면 그때 판매자에게 금액이 전달이 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반송하고자 할 경우 Prom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금액을 환불해 준다.

○ Epicentr

사이트 주소	https://epicentrk.ua/
개요	DIY 건축 자재 전문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68 개 매장을 갖고 있다. 2016년부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자상거래 상위 3위에 속한다. 온라인을 통해서 한달에 약 16만 건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EPICENTR는 200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매출규모는 2020년 기준 23억 달러, 고용인원은 약 2만 4,000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건축과 주택에 필요한 모든 자재, 스포츠 용품, 정원용품, 캠핑 장비, 자동차 용품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징	온라인 주문 시 집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문 배송 대행기업 Nova Posta, Justin, Meest등과도 협업하여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Allo

사이트 주소	https://allo.ua/
개요	핸드폰 판매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우크라이나 140개 도시에 320개 매장을 가지고 있다. 11백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Allo는 1998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고용인원은 약 4,000명이다. 매출액은 비공개했다.
주요 판매 품목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스포츠 용품, 공구, 아동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징	우크라이나 주요 5개 도시 키이우, 드니프로, 짜뽀리취, 오데사, 리비브에 제품 주문 시 3~5시간안에 배송해주는 Allo-expre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 소비자들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인 '브랜 드존'을 운영하고 있다.

◦ Bigl

사이트 주소	https://bigl.ua)
개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PROM과 같이 EVO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으로 22,000개사에서 25백만 제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Bigl은 2016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고용인원은 약 25명이다. 매출액은 비공개했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가전제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악기, 등 전반적인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특징	Bigl은 주문한 상품의 수에 상관없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지 않아 피해를 본 구매자를 대상으로 5,000(약 200달러) 흐리브나 상당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포인트 적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우크라이나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및 그 계열사가 10개사 정도 현지에 진출해서 법인,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 일부도 현지에 법인,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현지 진출기업 대부분 인근 유럽국가 등 제3국으로 피신하여 원격근무를 하고 있다. 현지 진출 성공사례를 든다면, 1998년 대우가 투자하여 우크라이나 자동차 제조업체인 ZAZ와 합작법인 AvtoZaz-Daewoo를 설립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투자해서 운영한 곡물터미널도 있다. 러-우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재건 관련, 플랜트 건설, 에너지 사업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 문의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투자진출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할 단계이다.

나. 실패사례

현재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대개 판매 법인 혹은 지사 형태로 나와 있으며, 우크라이나 경제 여건 악화, 코로나 등으로 인해 오히려 주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우크라이나 지역이 여행 경보 4단계가 되어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도 인근 유럽 국가로 피신 중에 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투자 위험이 있어 선불리 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우리 국민의 경우 여행 또는 단기 출장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오는 경우 180일 이내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 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노동 비자를 한국에서 취득한 후 입국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는 D type(장기 체류 비자) 인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시상황으로 인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곳이 많지 않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도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에서 발급을 해주는 곳이 있으나 상황이 상시 변해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의 서류 목록은 비자 발급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이나 전시 상황으로 인해 필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방문 목적에 따라 대학교, 기업 등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초청장이 필요하다. 초청장과 비자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소 출국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 비자 신청 서류 목록
 - 여권
 - 비자 신청서
 - 증명사진 1장(35x45mm)
 - 의료 보험 증명서
 - 은행 잔고 증명서
 - 비자 발급 수수료 영수증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https://korea.mfa.gov.ua/en>)에서 비자 발급 관련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한국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2.13.(일) 0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시에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따라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현재는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국민만 방문이 가능하다. 장기 거주 목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단기로 최대 4주까지 허가 승인을 받고 방문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사전 요청승인을 받은 국민만 방문이 가능하다. 장기 거주 목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단기로 최대 4주까지 허가 승인을 받고 방문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 1) 술
 - 양주류: 1리터 이하(알코올 함량 22% 이상)
 - 와인: 2리터 이하
 - 맥주: 5리터 이하
- 2) 담배
 - 궐련(cigarette) 200개비 이하
 - 시가(cigar) 50개 이하
 - Tobacco 250g 이하
- 3) 면세한도액

- 귀금속, 고가품, 골동품 등 총합계 200유로 상당 이하
-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노트북, 카메라, 귀금속류는 반출을 전제로 면세 반입이 가능하나 출국 시 반출을 위해서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반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전자제품, 고급의류, 악기 등 고가 품목은 물품에 따라 소정의 수입 관세가 과세된다.

4) 외국환 신고

- 외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모든 외화(여행자수표 포함)가 1만 유로 상당을 초과하여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1만 유로 초과 외화의 휴대 반출·입 시 세관 당국에 신고 불이행의 경우 초과금액 전액 몰수 및 상당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의약품

- 진단서와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6) 식품

- 총합계 50유로 상당 이하 가액의 가공된 식품 휴대 반입 가능(2kg 이하)

7) 반입불허품목

- 총기류, 마약류, 위해약품

8) 반출불허품목

- 총기류, 마약류, 위해 약품, 1945년 이전 골동품 및 예술품(시청문화국 허가품은 제외)
- 1945년 이후 골동품은 세관평가 금액에 50% 과세

9) 기타 유의사항

- 출국 시에도 휴대 외화 총액이 1만 유로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입국 시 휴대 반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반출허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코이카

주소	Striletska St, 12, Kyiv, Ukraine
----	----------------------------------

○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38-044-246-3759/60/61
주소	12, Striletska St.,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ukr.mofa.go.kr/korean/eu/ukr/main/index.jsp
비고	현재 운영중

<자료원 :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The Ukrainian Weekly (영자신문)

전화번호	+38-973-292-9800
주소	07054 Parsippany, New Jersey 2200 Route 10, PO Box 280
홈페이지	http://www.ukrweekly.com/

○ Kyiv Post (영자신문)

전화번호	+38-044-591-3344
주소	31A Pushkinska Street, Suite 600, 6th Floor,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www.kyivpost.com/

○ Ukrainian News (우크라이나 뉴스)

전화번호	+38-044-494-3165
주소	1st floor, 20 Esplanadna Street,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ukranews.com/

◦ DELO (우크라이나 경제지)

전화번호	+38-044-585-5891/92
주소	5-6th floors,36B, Saksaganskogo Street,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delo.ua/

◦ Interfax-Ukraine(우크라이나 뉴스, 영문 지원)

전화번호	+38-044-270-7465
주소	8/5a, Reitarska Street,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s://en.interfax.com.ua/

◦ President of Ukraine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전화번호	+38-044-255-7333
주소	11 Bankova St. Inquiry office of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s://www.president.gov.ua/en

◦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우크라이나 내각)

전화번호	+38-044-256-6333
주소	Mykhaila Hrushevskoho St, 12/2,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s://www.kmu.gov.ua/en
비고	홈페이지 운영 잠시 중단

◦ State Statistics service of Ukraine (우크라이나 통계청)

전화번호	+38-044-287-2422
주소	Shota Rustaveli St, 3,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www.ukrstat.gov.ua/

◦ Ministry of Interior of Ukraine (우크라이나 내무부)

전화번호	+38-044-256-0333
주소	Academician Bogomolets St., 10,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mvs.gov.ua/

◦ Ministry of Finance of Ukraine (우크라이나 재무부)

전화번호	+38-044-201-5630
주소	Mykhaila Hrushevskoho St, 12/2,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s://mof.gov.ua/uk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Ukraine (우크라이나 외무부)

전화번호	+38-044-238-1657
주소	Mykhailivs'ka Square, 1,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s://mfa.gov.ua/en

◦ National bank of Ukraine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전화번호	+38-080-050-5240
주소	9, Instytutska St., Kyiv, Ukraine
홈페이지	https://www.bank.gov.ua

◦ State Fiscal service of Ukraine (우크라이나 관세 세무국)

전화번호	+38-044-272-5159
홈페이지	http://sfs.gov.ua/en/
비고	우크라이나 재무부 산하 기관_홈페이지 운영 잠시 중단

◦ Ukrinform(국영 신문)

전화번호	+38-044-299-0556
주소	8/16 Bohdan Khmelnytsky st., Kyiv, 01001, Ukraine
홈페이지	https://www.ukrinform.ua/

<자료원 : 각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36,1394 흐리브나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2인 코스 요리(중간급 레스토랑)	2인분	26.400
2	식품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1인분	5.560
3	식품	닭가슴살	1kg	4.120
4	식품	감자	1kg	0.460
5	식품	치즈(우크라이나산)	1kg	8.360
6	음료	생수	330ml	0.490
7	음료	코카콜라	330ml	0.700
8	음료	맥주(우크라이나산)	500ml	1.110
9	음료	카푸치노	1잔	1.300
10	교통	대중교통 1달 티켓 요금	기본요금	11.12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670
12	서비스	인터넷 요금(60Mbps, Cable/ADSL, 무제한)	기본요금	5.76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460
14	서비스	85m2 아파트의 한 달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등)	일반	90.050
15	여가	영화입장권	일반	4.170
16	여가	월간 피트니스 성인 1명 이용권	1개월	23.070
17	주택	시내 중심지부에 위치한 방 1개짜리 아파트 월세	1개월	370.040
18	평균 급여	월평균 급여(세금 공제 후)	1개월	418.090
19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6.000
20	교육	국제 초등학교 수업료(학교별 학비 상이)	연	5264.280
21	식품	쌀	1kg	1.650
22	식품	식빵	500g	0.670
23	식품	소고기	1kg	6.490
24	식품	계란	12개	2.030

25	식품	우유	1L	1.050
26	식품	양파	1kg	0.910
27	여가	테니스	1시간	12.920
28	신발	가죽 남성용 신발	1켤레	94.710
29	의류	여름 원피스	1벌	36.200
30	교육	사립 유치원(유치원별 학비 상이)	월	288.20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30.160
32	주택	시내중심가 아파트 매매	m2	1449.450
33	식품	바나나	1kg	1.590
34	식품	와인(중급)	1병	4.720
35	통신	휴대전화/인터넷 사용료	10GB/1개월	6.13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5.760
37	담배	Marlboro 담배	20개비	2.300
38	서비스	OTT 구독료(Netflix 기본)	1개월	4.15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16.32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12.000

<자료원 : Numbeo(2023년 11월 기준), Minfin,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등>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우크라이나의 화폐단위는 흐리브나(Hryvna)로서 약칭은 Hr 또는 UAH이며, 1흐리브나는 100코피옥(kopiyock)이다. 주화에는 50 Kopiyouck, 1, 2, 5, 10흐리브나(UAH)등이 있으며, 지폐에는 1, 2, 5, 10, 20, 50, 100, 200, 500, 1000 흐리브나가 있다. 최근에는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점점 주화 단위의 화폐 사용률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 1일부로 1, 2, 5 코피옥 발행 및 사용을 중단시켰으며, 2020년 10월 1일부로는 25 코피옥의 발행 및 사용 역시 중단되었다.

환전방법

호텔, 은행, 그리고 시내의 도처에 산재해 있는 사설 환전소에서 달러화, 유로화 등을 환전할 수 있다. 러시아 침공 이후부터는 루블화를 현지화(흐리브나화)로 환전 할 수 없다. 환전소 간에 환율 차이가 심하지는 않으나 다소의 차이는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근 환전소의 환율을 비교해 보고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단, 공항환전소는 환율수수료가 매우 높아 현지화로 환전할 때 다소 불리하므로 현지화로 환전 시에는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암달러상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적용환율에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암달러상을 통한 환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암달러상을 통한 환전은 피하도록 한다.

여행자 수표는 일반 환전소에서는 받지 않으며, 일부의 은행에서만 환전해주므로 사용이 매우 불편하다. 정부의 기존 외환관리 정책에 따르면 여권을 지참해야만 환전이 가능했으나, 2016년 하반기 정책이 바뀌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환전이 가능하다.

또한 달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하루 30,000 흐리브나 상당의 달러 인출이 가능하며, 현지 계좌에서 개인이 돈을 인출할 경우 하루 100,000흐리브나로 제한된다. 인터넷 뱅킹 시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

신용카드 이용

최근에는 카드 사용이 과거에 비해 대중화되었으나 일부 식당이나 가판대 등에서는 여전히 카드 결제가 어려우며, 신용카드를 지불하려고 할 때 기기고장 등의 이유로 결제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출장 시 어느 정도의 현금은 준비해 오는 것이 필요하다.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통상 신용카드 예치나 호텔요금 선불을 요구하므로 국내 신용카드는 최소 1개 정도는 소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거주 등록이 된 경우 카드 발급이 가능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은행에 입금한 후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발급은 가능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의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나. 교통

교통상황

키이우시 대부분의 지역을 지하철로 갈 수 있도록 잘 연결되어 있으며, 버스 및 전차노선도 많은 편이다. 1~2시간 이내면 키이우 시내의 대부분을 갈 수 있지만, 키이우 시내에는 교통 체증이 심하므로 출퇴근 시간에는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키이우에서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인 지하철(METRO)을 타기 위해서는 역내 매표소에서 1회용 QR코드 승차권이나 충전식 지하철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Google Pay나 Apple Pay를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메트로) 요금은 편도 8흐리브냐이고, 카드 충전 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충전할수록 개별 티켓의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해진다.

그러나 러시아 침공 후 현재 키이우시에서는 자정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어떤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없다.

지하철은 오전 6시 30분에서 오후 23시까지만 운행되고 있다.

버스

우크라이나에는 일반버스, 마르슈루트카(노란색의 미니버스), 트롤레이버스, 트램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다. 요금은 8~10흐리브냐 내외이다. 일반버스와 마르슈루트카를 탈 때에는 기사에게 직접 버스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전기버스(트롤레이버스)나 트램을 이용할 시 QR코드 승차권이나 충전식카드를 이용해서 사용가능하다.

택시

택시는 길거리 어디서나 잡을 수 있으나 그 숫자가 많지 않고 가격이 비싸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택시는 정식 택시 및 자가용 영업택시 모두 택시 내에 미터기(요금기)가 없으며, 이런 사유로 승객들은 택시를 거리에서 세워 타기 전에 목적지부터 얘기하고 요금을 흥정한다. 이러한 사전 흥정은 전화로 콜택시를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요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무작정 타게 되면 바가지를 쓰기 쉽다.

하지만 밤에는 치안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식 택시를 이용하고, 길거리에서 잡는 택시보다는 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콜택시 이용 시 출발 거리명 및 도착 거리명을 간단한 우크라이나어로 암기해두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적은 후 원하는 금액을 적으면 근처의 기사들을 연결해주는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택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Uklon, 우버(Uber), 볼트(Bolt) 택시 등이 있다.

키이우 시내 약 5~10km 거리의 경우에는 50~100흐리브냐(약 3~5달러)를 주면 된다. 보리스폴 국제공항에는 택시회사 사무실이 있으므로 이곳에 가서 택시를 타는 것이 안전하며, 키이우 시내까지는 20달러 정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 Call Taxi 연락처(휴대폰 이용 시)
 - Grand Taxi: 044-237-3000/ 3676
 - Radio Taxi: 044-249-6249, 246-1036
 - Express Taxi: 044-239-1515

다. 통신

핸드폰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통신사로는 Vodafone, Kyivstar, Lifecell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 해외 로밍을 해오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선불 유심을 구매할 수 있다. Vodafone 기준 전화와 문자메시지 포함 데이터 4GB에 한화로 약 8,500원으로 아주 저렴한 편이다.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선불 유심을 구매할 수 있고 사용 중 요금이 부족할 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충전하거나 통신사 매장 및 마트, 쇼핑몰 등에 비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대부분의 식당과 호텔, 카페, 쇼핑몰 등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에 비해 속도가 느린 편이다. 아직 유심을 구매하기 전인데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다면,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나 카페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하철에서 인터넷접속이 안되었으나 2020년 10월 28일부터 지하철에서도 유심카드 4G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 관광명소

○ 성소피아 사원(Saint Sofia Cathedral)

도시명	키이우
주소	St. Vladymyrska 24, M. Zoloti Vorota
운영시간	10:00~17:30(수요일 10:00~16:30)
휴무일	목요일 휴관
명소소개	키이우를 대표하는 사원의 하나로, 1037년 아시아 유목민족과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전쟁터 위에 건립됐다. 해당 사원은 고대 키이우인들의 예배 장소로서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외교사절 접수 및 외국과의 협정체결장소로 사용됐으며, 키이우 최초의 학교 및 도서관이 이 사원 내에 설치됐다. 경내에는 종루와 박물관이 있고 종루는 고딕양식으로 4층 78m의 높이이며, 박물관에는 사원과 키이우의 역사에 관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사원 내의 프레스코화, 모자이크 등이 천 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있다.
비고	전화: +380 44 278 2620 홈페이지: https://st-sophia.org.ua/en

○ 페체르스카 라브라 대수도원(Pecherska Lavra Monastery)

도시명	키이우
주소	St. Sichnevoho Povstannia 25, M.Arsenalna
운영시간	9:00~18: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남 슬라브 지방 최대의 수도원으로서 러시아 문화의 원천이다. 1051년 동굴에서 수도생활을 하던 두 사람의 수도승이 동굴 위에 사원을 지은 데서 기원됐다(페체르스 우크라이나어로 동굴을 의미함). 수도원이 세워진 것은 키이우 대공국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스정교가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한 11세기 중반이며, 900여 년에 걸쳐 여러 교회와 수도생활에 필요한 건물 등이 세워졌고, 16세기에는 보통의 수도원보다 격이 높은 대수도원(라브라)의 칭호가 주어졌다. 대수도원의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는 1108년에 세워진 트로이프카야(삼위일체) 성당이다. 이 수도원의 상징인 대종루는 18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높이는 96m이다. 사원 내에는 Miniature 박물관, 서적인쇄박물관, 영화연극박물관, 민예박물관들이 늘어서 있다. 수도원의 중심을 조금 벗어난 긴 낭하를 걸어가면 지하 동굴묘지가 있는데, 좁은 미로와 같이 펼쳐져 있고 통로 양옆으로 수도승 미라가 옷을 입은 채 관에 안치돼 있다.
비고	전화: +380 44 255 1105 홈페이지: http://www.lavra.ua/

○ 황금문(Golden Gate)

도시명	키이우
-----	-----

주소	Volodymyrska St, 40A, Kyiv
운영시간	화: 10:00~17:00 수~일: 10:00~18:00
휴무일	월요일 휴관
명소소개	야로슬라브 공(1019~1054년) 시대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요새가 일부 남아있는 건축물로서 1983년 현재의 상태로 복원하고 같은 해 Golden Gate 박물관을 개관했다. 고대 키이우인들이 사용하던 병기나 Golden Gate 근처에서 발굴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당시 문의 위쪽에 다량의 금박이 사용돼 사원의 돔과 함께 매우 빛났다고 해 황금문으로 불리게 됐다.
비고	전화: +380 44 278 6919

○ 우크라이나 민속박물관(Ukrainian Folk Village)

도시명	키이우
주소	Vulytsya Akademika Tronka, Kyiv
운영시간	오전 10:00~18: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시내에서 승용차로 약 30분 거리의 외곽에 위치해있다. 총면적 150헥타르에 우크라이나 전통 가옥 400채 이상을 고대부터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으며, 농촌 풍경 등을 재현한 곳에서는 우리의 옛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쟁기, 물레방아, 베틀 등도 전시되어 있어 동서양의 농촌 문화를 비교해볼 수 있다. 주말이면 현지인들의 산책 장소로도 많이 이용된다.
비고	전화: +380 98 913 8007 홈페이지: http://www.pyrohiv.com/

○ 안드리브스키 사원(St. Andrews Church)

도시명	키이우
주소	23 Andriyivskiy uzviz, M. Poshtova Ploscha
운영시간	월~금: 08:00~18:00 토~일: 07:00~17: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1748년 이탈리아의 건축가 라스트렐리(Rastrelli)에 의해 당시 러시아 여제 엘리자베스 1세의 키이우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다. 라스트렐리는 상트뵘테르부르크의 겨울궁전, 에르미타주 박물관, 키이우의 마린스키 궁전 등도 건축했다. 외부 장식으로는 키이우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교회라 할 수 있다. 큰 돔은 높이가 60m 정도이며, 이를 중심으로 네 귀퉁이에 녹색의 등근 지붕이 각각 금으로 장식돼 있다. 해당 사원을 중심으로 일명 안드리브스키 언덕에 많은 갤러리와 기념품 노점상들이 형성, 무명 화가들이 그린 그림과 간단한 민속공예품을 구경 및 구입 가능하다.
비고	전화: +380 44 599 0005 홈페이지: http://andriyivska-tserkva.kiev.ua/

○ 국립 오페라 극장(National Opera House)

도시명	키이우
주소	St. Vladymyrska 50
운영시간	공연 스케줄 참고
휴무일	월요일 휴관 / 7~8월: 해외공연 일정으로 장기간 휴관함(방문 시, 사전 확인 필요).
명소소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오페라, 발레 전용극장으로 매일 발레 또는 오페라를 공연한다. 티켓은 예약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나 공연 당일 극장 매표소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매표소는 오페라 극장 입구 양옆에 위치해 있다 .
비고	전화: +380 44 234 7165 홈페이지: http://www.opera.com.ua/en 전시 상황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 마린스키 궁전(Marinsky Palace)

도시명	키이우
주소	St. M.Hrushevskoho 5a, M.Arsenalna
운영시간	오전 10:00~17:00
휴무일	월요일~수요일
명소소개	1750~1755년 예카테리나 여제를 위해 당대의 유명 건축가들을 총동원해 세운 황제 전용 궁전으로 건물의 길이는 65.3m, 총 길이 119.1m, 건물의 폭은 20m이다.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궁전 내부는 화려한 장식으로 유명하다. 1층은 석재, 2층은 목재로 건축됐는데 1819년 화재에서 2층이 소실됐다. 1870년 알렉산드르 2세와 마리나 황후의 방문에 맞추어 마엡스키의 건물로 지어졌으나 2차 대전 때 건물이 파괴돼 1945~1949년 보수했다. 알렉산드르 2세 부인 마리아 황후를 기념하기 위해 마린스키 궁전으로 불린다.
비고	오랜동안 내부 보수 공사 중으로 입장 불가했다고 2020년 9월 23일부터 사전 예약한 후 입장가능해졌다. 그룹 관광(금~일)/초중고 단체 관광(목)만 가능하다. 전화: +380 98 549 4671 홈페이지: https://m-palace.com.ua

○ 조국 어머니상 및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관(The motherland monument and National museum of the history of Ukraine in the Second World War)

도시명	키이우
주소	St. Lavrska 27, Kyiv
운영시간	10:00~17:00
휴무일	월요일 휴관
명소소개	드니프로 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는 조국의 어머니상은 소련 흐루시초프시절 건설되었다. 동상이 들고 있는 칼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동상의 높이가 성 소피아 성당보다 높을 수 없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동상이 건설된 이후 칼의 길이를 7m 정도 잘라냈기 때문이다. 조국의 어머니상 밑에는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관이 위치해 있으며 당시의 사진 자료와 함께 소련제 탱크, 비행기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비고	전화: +380 44 285 9425 홈페이지: warmuseum.kiev.ua
----	-------------------------------------------------

〈자료원 : KOTRA 키이우 무역관 자체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 오빠나스(Opanans)

도시명	키이우
전화번호	38(044) 585-0523
주소	Tereshchenkivska St, 10
가격	1인당 20~50 USD
영업시간	9:30~24:00
휴무일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소개	키이우 국립대학 근처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전통 고급식당

○ 짜르스키셀로(Tsarske Selo)

도시명	키이우
전화번호	38(044) 288-9775
주소	Lavrska St, 22, Kiev
가격	1인당 20~50 USD
영업시간	9:00~25:00
휴무일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소개	키이우 시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전통 고급식당

○ 페르박(Pervak)

도시명	키이우
전화번호	38(044) 235-0952
주소	2 Rohnidynska St.
가격	1인당 20~50 USD
영업시간	11:00~24:00

휴무일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소개	키이우 시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전통 고급식당

〈자료원 : KOTRA 키이우 무역관 자체조사〉

- 한국식당

○ 본죽(Bonjuk)

도시명	키이우
전화번호	+38-044-490-2632
주소	Ave. Nauky 22, Kyiv
가격	1인당 10달러 내외
영업시간	10:00~21:00
휴무일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소개	한국인 운영
비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시상황이라 우크라이나는 한국 외교부에서 정한 여행금지구역으로 한국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어 식당 운영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

○ 아리랑(A Ri Rang)

도시명	키이우
전화번호	+38-044-528-5529
주소	St., Horkoho 160, Kyiv
가격	1인당 10달러 내외
영업시간	10:00~22:00
휴무일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소개	고려인 운영
비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시상황이라 우크라이나는 한국 외교부에서 정한 여행금지구역으로 한국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어 식당 운영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

○ 김김치(Kim KimChi)

도시명	키이우
전화번호	+38 (095) 655 9254
주소	Pravdy Ave, 47, Kyiv, 04208
가격	매뉴얼 가격 홈페이지 참고

영업시간	12:00~22:00
휴무일	연중무휴(특정 공휴일 제외)
소개	현지인 운영
비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시상황이라 우크라이나는 한국 외교부에서 정한 여행금지구역으로 한국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어 식당 운영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

○ 서울 소울 코리안 BBQ(SEOUL SOUL KOREAN BBQ)

도시명	키이우
전화번호	+38(063)777-1212
주소	Antonovycha St 170/1B, Kyiv
가격	1인당 10달러 내외
영업시간	11:00~23:0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자료원 : 키이우 무역관 자체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프리미어 호텔 루스(Premier RUS)

도시명	키이우
주소	Hospitalna Str., 4
전화번호	+38 (044) 391-0063
홈페이지	http://www.hotelrus.kiev.ua
숙박료	싱글 52유로 / 트윈 55유로
소개	키이우 시내에 위치한 3성급 호텔로 내부에 대형 상담장을 갖추고 있어 비즈니스 행사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 이비스 키이우(IBIS Kiev)

도시명	키이우
주소	Blvd Taras Shevchenko 25
전화번호	+38 (044) 591-2222
홈페이지	http://www.ibis.com/Kiev

숙박료	싱글/트윈 51유로
소개	키이우 중심부에 자리잡은 3성급 호텔로 가격대비 시설이 좋다.

○ 홀리데이 인 키이우(Holiday Inn kiev)

도시명	키이우
주소	Chervonoarmiiska Str. 100
전화번호	+38 (044) 363-3000
홈페이지	http://www.ihg.com/
숙박료	싱글/트윈 110유로
소개	키이우 중심가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드림하우스 호스텔 키이우(DREAM House Hostel Kyiv)

도시명	키이우
주소	Andreevskiy Spusk 2D, Podilskyj, 04070, kiev
전화번호	+380 44 580 2169
홈페이지	http://dream-hostels.com
숙박료	1박 약 12USD
소개	키이우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관광을 하기 편리하고, 숙박 사이트 내에서도 높은 평점을 받은 호스텔

<자료원 : 호스텔 홈페이지>

사. 치안

치안상황

치안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오데사 등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점차 악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야간 외출 시 현금을 많이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그룹으로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대도시에서는 스킨헤드 등 아시아계 유색인종을 혐오하는 단체가 단순히 아시아계라는 점 때문에 공격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성 소매치기 현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흔히 사용되는 수법은 길에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외국인이 다가오면 지갑을 주워서 "함께 보았으니 나누어 가지자"라고 하며 골목길로 유인하는 것이다. 이때 주인을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 지갑에 돈이 더 많이 있었다고 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채우라고 강요한다. 지갑을 들고 같이 나누자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앞서 지나가는 사람이 돈뭉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것을 주우면 한 뭉치가 아니라 2~3 뭉치가 있었다면서 내놓으라고 하거나 지갑을 보자고 해서 지갑을 보여주면 어느 순간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가 버리는 수법이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지갑이나 돈이 떨어

지면 절대 줍거나 떨어뜨린 사람에게 얘기해 주지 말고 못 본척하고 지나가 버려야 한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누가 현지어로 무슨 말을 하며 따라붙으면 다소 큰 목소리로 "니" 또는 "노"라고 하면서 뿌리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이러한 소매치기는 주로 여행객을 노리며, 시내 변화한 거리나 호텔 주변에 많이 있다. 시내 마이단(독립광장) 주변에는 집시들이 소매치기하는 경우와 경찰(보통 2인 1조)들이 불심검문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현황(2018년 12월 기준)
 - 적색경보(철수 권고): 돈바스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크림 자치 공화국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중(2020년 03월 23일 ~ 별도 공지시까지)
 -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상세 내용은 하기의 링크 통해 확인 가능
(http://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69)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2022년 2월 13일 ~ 별도 공지시까지)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상세 내용은 하기의 링크 통해 확인 가능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mst_id=MST0000000000040&id=ATC000000008930)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경찰(긴급전화 102)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 현장에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 및 응급 구조대(긴급전화 103)에 모두 신고하여 부상자가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 먼저 경찰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만 향후 자동차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자 차량을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은 사고난 상태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분실의 경우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신고하여 분실 사실을 통보하고,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여권 분실 경위에 대해 조사한 후 확인서를 끊어준다. 경찰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기까지는 많게는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확인서상에는 보통 '우크라이나 경찰의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우크라이나 경찰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것은 향후 우크라이나 출국 시 출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지갑 분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되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여행자 보험 등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확인서를 받으면 해당 보험 상품을 통해 소정의 금액을 변제받을 수도 있다.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101
- 경찰: 102
- 구급차: 103

- American Medical Center: +38 (044) 490-76-00
-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38 (095) 121- 0404(체르니우치 임시사무소)
- KOTRA 키이우 무역관: +38 (044) 495-29-79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부동산 업체를 통해 집을 구할 경우에는 통상 월 임차료의 50~100%를 중개수수료로 지불한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재원이나 아파트 경비 사무실을 통해 비어있는 집을 파악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전 임차할 집의 위치를 대체로 파악한 다음에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 따라서는 꼭 부동산중개업체를 개입 시키는 경우도 있다.

임차료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위치, 가구가 딸려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주택 내부에 고급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등을 완벽히 놓으면 월세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 최근에 신축 또는 개보수된 키이우 중심부 소재 30평 아파트의 경우 월 임차료가 3,000달러가 넘는다. 현지 주택 임차료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내의 경우 대부분의 집주인은 가격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려면 하고 싶으면 그만두라는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공급 위주 부동산 거래에 익숙해진 부유층 임대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나 엘리베이터 내부가 깔끔하고 넓은 곳이 드물며, 같은 건물이라도 층마다 복도의 상태가 틀리고, 같은 층이라도 아파트마다 문이나 내부구조, 인테리어 등이 다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집 외부 장식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대문부터 시작해 집 내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도 골조분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공공시설보다는 내부시설에 투자를 집중한다. 그러나 최근 개인주택과 City Town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주택 임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원 및 주택 외부 관리 제품 및 서비스도 증가 추세이다.

한편, 치안이 아직 양호한 편이나 빈부차가 커짐에 따라 도둑, 강도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택 임차 시 보안과 접근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러-우 사태로 공습경보가 있어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이나 대피소가 가까운 곳이나, 단독주택 임차 경우 지하실이 있는 곳으로 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화

휴대전화의 발달로 유선 전화기는 가정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정용 인터넷 신청은 해당 주택 소유주가 아닌 외국인은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며,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전압/플러그

우크라이나 전압은 22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2구 콘센트를 사용한다.

식수

우크라이나의 수도물은 비위생적이고 식수로서 부적합하므로 미네랄 워터나 청량음료를 구입해야 한다. 현지 식당에서도 물은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 미네랄 워터는 가스가 들어있는 것과 없는 것의 2종류가 있으며 보통 후자가 비싼 편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우크라이나에 정식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후 개인별 세금 납부를 위한 ID 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각 브랜드의 딜러 매장 및 중고차 시장을 방문해 관심 있는 차를 골라 구매하고, 내무부 산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차량 가격에 따라 등록비가 정해지며, 차량 번호판 및 차량 기술 등록 여권(Technical passport) 발급을 위한 소정의 비용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신차를 구매하였다면 신차 가격의 약 5%를 연금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차량가격

우크라이나에는 전 세계 유명 브랜드의 정식 딜러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 여유자금만 있다면 원하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별 차량 판매 조건은 달라서 정확한 차량 가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차량 모델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보다 차량 가격이 비싼 편이다. 이는 차량 수입 시 관세를 포함해 부가세가 20% 붙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취득

우크라이나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라틴어로 적혀있는 외국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현지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운전 면허증 교체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운전하거나 혹은 우크라이나에서 현지 국제운전면허증을 구매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고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한국에서 갱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지 국제운전면허증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아니고,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 경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1) National Bank of Ukraine(현지)

- 주소: 9, Institutska str., 01601, Kiev, Ukraine
- 전화번호:(380-44)298 65 55
- 홈페이지: www.bank.gov.ua

2) Privatbank(현지)

- 주소: 50, Permogy Naberezhnaya, 49094, Dnepropetrovsk, Ukraine
- 전화번호: (380-562) 39 0000
- 홈페이지: www.privatbank.com.ua
- 이메일: privat@pbank.dp.ua

3) Oschadbank(현지)

- 주소: 27, Vladimirska str., 01034, Kiev, Ukraine

- 전화번호:(380-44) 247 84 18
- 팩스번호: (380-44) 247 85 68
- 홈페이지: <https://www.oschadbank.ua>
- 이메일: contact-centre@oschadbank.ua

4) Ukrsibbank(외국계)

- 주소: 14, Pushkinska Str., Kyiv, Ukraine
- 전화번호: (380-44) 278 8636, 278 8611
- 홈페이지: <http://www.ukrsibbank.com/en>

5) Raiffeisen Bank Aval(외국계)

- 주소: 9, Leskova str., 01011, Kyiv, Ukraine
- 전화번호: (380-44) 354 14 34
- 홈페이지: <https://raiffeisen.ua>
- 이메일: info@raiffeisen.ua

6) Credit-Agricole(외국계)

- 주소: 42/430, Vulytsia Pushkinska Str., 01024, Kyiv, Ukraine
- 전화번호: (380-44) 495 2277
- 홈페이지: <https://credit-agricole.ua/>

계좌 개설방법

우크라이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면, 신용할 만한 은행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은행들은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현지인들 또한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계좌 개설 전 해당 은행의 재정 상태와 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은행 내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아래의 서류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이다. 은행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좌를 개설할 은행을 선택했다면 사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한 뒤 모두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크라이나에서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여권
 -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임시 거주 허가서
 - 우크라이나의 세금 번호
 - 계좌 개설 신청서(우크라이나 내의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 필수)
 - 서명 카드
 - 공증 형식의 위임장(제3자가 본인의 계좌를 처분해야 할 경우)
 - 개인과 은행 간의 계좌 개설 동의서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Kyiv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키이우
커리큘럼	3학기로 나누어 수업을 실시하며, 미국식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함. 12학년제 운영
학비	연간 학비는 PK : 11,400 USD / K-12 :19,600 USD (2021년 기준, 입학금 및 수업료, 스쿨버스비 및 중식대는 별도) 전시상황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출국하여 2022년 가을학기 학교 운영과 학비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없다.
홈페이지	http://kis.net.ua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위치: 3A Svyatoshynskiy Provulok, 03115, Kiev o 전화: 38-044-452-2792 o 팩스: 38-044-452-2998 o 이메일: kyiv@qsi.org <p>현지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p>

<자료원 : KOTRA 키이우 무역관>

- 현지학교

o Secondary School No.277

도시명	키이우
커리큘럼	우크라이나 현지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school277.ucoz.net
비고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공립고등학교

<자료원 : KOTRA 키이우 무역관>

마. 병원

o American Medical Center

도시명	키이우
주소	1, Berdychivska Srt., Kyiv,
전화번호	(044) 490–76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및 응급센터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24시간 이용 가능 ○ 홈페이지: https://kyiv.amcenters.com/
----	-------------------------------------------------------------------------------------------------------------------------------------------------------------

○ BORIS

도시명	키이우
주소	Bazhan, 12-A, vul. V.Vasilkvska, 55-A, Kyiv.
전화번호	(044) 238-0000
진료과목	신경외과, 소아과, 내시경 검사 등
비고	<p>운영시간: 24 시간 이용 가능</p> <p>현지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p>

○ Interdisciplinary Dental Center named by Y. V. Opanasiuk

도시명	키이우
주소	44a, Khreshchyk Str., Kyiv,
전화번호	(044) 285 8518
진료과목	치과전문
비고	<p>운영시간: 09:00~20:00</p> <p>홈페이지: www.ipst.com.ua</p> <p>현지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p>

<자료원 : KOTRA 키이우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TSUM (쥘)

도시명	키이우
주소	Khreschatyk St, 38, Kyiv, 01001
홈페이지	http://tsum.ua/ua
비고	<p>키이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백화점</p> <p>홈페이지의 경우 해외전용 url로 국내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음</p>

○ Globus (글로부스)

도시명	키이우
주소	Maidan Nezalezhnosti, 1, Kyiv
홈페이지	http://globus.com.ua/
비고	마이단 광장 역내에 위치한 쇼핑센터

○ Gulliever (걸리버)

도시명	키이우
주소	Sportyvna Square, 1a, Kyiv, 01023
홈페이지	http://gullivercenter.com/
비고	키이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쇼핑센터

○ Ocean Plaza (오션 플라자)

도시명	키이우
주소	Antonovycha St, 176, Kyiv, 03150
홈페이지	http://oceanplaza.com.ua/
비고	키이우 시내에 위치한 쇼핑몰

<자료원 : KOTRA 키이우 무역관>

- 식품점

○ 실포(Silpo)

도시명	키이우
주소	Sportyvna Square, 1, Kyiv, 02000
취급 식료품	육류, 생선류, 과일, 채소 등 모든 식료품
비고	체인 슈퍼마켓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아산(Auchan)

도시명	키이우
주소	Stepana Bandery Avenue, 15A, Kyiv, 02000
취급 식료품	육류, 생선류, 과일, 채소 등 모든 식료품
비고	체인 슈퍼마켓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노부스(NOBUS)

도시명	키이우
취급 식료품	육류, 생선류, 과일, 채소 등 모든 식료품
비고	체인 슈퍼마켓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아떼베(ATB)

도시명	키이우
취급 식료품	육류, 생선류, 과일, 채소 등 모든 식료품
비고	체인 슈퍼마켓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음.

<자료원 : KOTRA 키이우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스포츠라이프(Sportlife)

도시명	키이우
주소	Moskovska St, 32/2, Kyiv, 01010
홈페이지	https://www.sportlife.ua/
소개	우크라이나 내 체인 형식의 피트니스 센터
비고	○ 전화번호: 380 44 222 4222

<자료원 : KOTRA 키이우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없음.

10. KOTRA 무역관 안내

○ 키이우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Commercial Section of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KOTRA, 4th Floor, Business Centre Khreshatyk Plaza, 19a Khreshatyk Str., 01001, Kyiv, Ukraine
- 전화: +38-044-495-2951
- 팩스: +38-044-495-2978
- 대표 이메일: Kyiv@kotra.net.ua

공항-무역관 이동

키이우 무역관은 지하철 흐레샤티크(Khreshchatyk)역사와 붙어있다. 그러나 현재 흐레샤티크까지는 전철이 운행되고 있지 않아 마이단네 잘레즈노스티(Maidan Nezalezhnosti)역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 키이우 시내 최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택시를 이용(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키이우 무역관)할 경우 택시요금은 대략 U\$20-30 내외로 소요시간은 40~50분이다. 바가지 요금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Uber나 Uklon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항공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공항버스(SKY BUS)를 이용(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키이우 무역관)할 경우 종착역인 1호선 키이우 중앙역(Vokzalna)에서 하차한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마이단네잘레즈노스티(Maidan Nezalezhnosti)역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어야 한다.

그러나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Aqua Therm Kyiv 2023	2023-05-16 ~ 2023-05-18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Premier Expo
Intertool Kyiv 2023	2023-05-16 ~ 2023-05-18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Premier Expo
Kyiv Build 2023	2023-05-16 ~ 2023-05-18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Premier Expo
AutoTechService 2023	2023-05-30 ~ 2023-06-01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Premier Expo
INTERNATIONAL INDUSTRIAL FORUM	2023-05-30 ~ 2023-06-01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Ltd
PLAST EXPO UA	2023-05-30 ~ 2023-06-01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Ltd
InterCHARM Ukraine 2023	2023-09-20 ~ 2023-09-22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Premier Expo
ProStorExpo	2023-09-21 ~ 2023-09-22	Expo Center of Ukraine	Agroinkom
PUBLIC HEALTH 2023	2023-10-04 ~ 2023-10-06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Premier Expo
Mining & Minerals Expo 2023	2023-10-17 ~ 2023-10-19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Ltd
COMMUNTECH 2023	2023-10-17 ~ 2023-10-19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Ltd
OILGASEXPO 2023	2023-10-17 ~ 2023-10-19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Ltd
ROADTECHEXPO 2023	2023-10-17 ~ 2023-10-19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Ltd
EUROBUILDEXPO 2023	2023-10-17 ~ 2023-10-19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Ltd
ROADTECHEXPO 2023	2023-10-17 ~ 2023-10-19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Ltd

AQUA UKRAINE 2023	2023-10-17 ~ 2023-10-19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Ltd
WorldFood Ukraine 2023	2023-11-01 ~ 2023-11-03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Premier Expo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